

김대옥(29회) 회장, 모교학력 신장에 4억4천만원 쾌척

“최우선 목표 한시가 급해…재원 ‘마중물’로 내놓겠다”

못하는 ‘중하(中下)’라고 평가했다.
<기사 2면에 넘김>

6월경 본격적으로 모금운동…박종찬 고문, 1억원 기부 약속
총동창회·경남고 ‘모교발전 방안 협의회’, 12개 대책 마련

총동창회장 서신 28면 게재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이 모교 경남고 재학생들의 학력신장 제고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남고와의 협의회에서 도출된 방안의 실현에 필요한 재원은 뜻있는 동문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지난 3월 31일 오후 총동창회 밴드를 통해 이 같은 계

획을 밝히고 연내까지 ‘마중물’로 4억 4천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찬(25회) 고문도 이에 적극 호응, 1억원 쾌척을 약속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3·11·28면>

김 총동창회장은 “모금운동에 피로감을 느낄 동문들에게는 양해를 구한다. 동문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한껏 높아진 지금이 오히려 적기”라면서 “학

력문제는 한시라도 빨리 조치해야 한다. 코로나국면에 어렵더라도 발심하여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번에 모교지원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게 된 계기는 경남고의 대학입시 성적이 현격히 떨어지는 가운데 이대로 간다면 ‘명문 경남고’ 명성마저 자칫 ‘아, 옛날이여’란 ‘빛바랜 추억’으로 전락할 우려가 가시화 되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총동창회와 경남고 백영선 신임 교장간의 상견례를 겸한 1차 모교발전 방안 협의회(3월 8일 경남고 회의실 개최)에서 백 교장은 경남고의 학력수준을 부산지역 남자고교를 ‘상중하’로 나눌 때 ‘중(中)’에도 미치지

경남고 새 교장 부임 제22대 백영선 교장



경남고 제22대 교장으로 백영선(사진) 부산시교육청 장학사가 선임돼 지난 3월 2일 부임했다. 백 교

장은 자율형공립고인 경남고 교장 공모 절차를 거쳤다. 이번 공모에는 백 교장이 단독 후보로 나섰으며, 심사위원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교장은 2015~2016년 경남고 교감으로 재직 한 인연도 있어 학교운영에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 교장의 임기는 4년이다.

한편 전임 정대호 교장은 4년 임기를 마치고 연제고 교장으로 전근되었다. <관련기사 3면, 인터뷰 2223면>



지난 2월 17일 김대옥(29회·왼쪽에서 세 번째) 총동창회장이 주재하는 집행위부회장단회의에서 위촉장 수여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4일 타계한 고(故)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이 함께했다. <사진=윤원옥(39회) 영상편집위원>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 타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총동창회 회원 일동

<기사 31면>

김경진(27회) 동문, ‘회원자격 상실’ 중징계 위법성 유인물·밴드로 동문사회 분열 야기 책임

총동창회 비대면 이사회서 의결

김경진(27회) 동문이 총동창회 회원 자격상실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30일 열린 비대면 이사회 의결 결과이다. 회원자격 상실 찬성 74명, 반대 16명이었다. 용마의 ‘천평칭(天平秤)’이 작동했다. 동창회칙 제2장 제7조(회원의 자격 상실)가 적용됐다. 지난 1월 말 총동창회장 선출 이사회 투표 부결에 이은 또 하나의 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이다. 총동창회사(史)에 얼룩

이 될 흑역사이다. <관련기사 4567면>

김 동문은 두 차례(2월 3일, 3월 11일 무렵)에 걸쳐 동창회보 구독 동문들에게 총동창회가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처럼 위장한 서신을 발송했을 뿐만 아니라, 총동창회 공식 밴드를 사칭한 밴드를 개설(3월 2일경)하는 등 동문들을 현혹시키고 총동창회의 분열을 야기했다는 지탄을 받았다.

김 동문의 유인물은 대다수 동문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유인물의 발송 방식의 위법성, 주장의 허구성, 의도의 악

의성, 그리고 동문으로서 느끼는 자괴감 등이 동문사회를 짓눌렀다.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김 동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빚발쳤다.

총동창회는 지난 2월 17일 총동창회관에서 집행위부회장단회의를 열어 김 동문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곧바로 소명절차를 거쳤다. 2월 28일자로 작성된 김 동문의 소명 글은 자신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박종찬(25회) 전임 회장과 김대옥(29회) 신임 회장에게 전

가하는 내용이었다. 총동창회는 이 내용을 비대면 집행위부회장단회의에 붙여 10대1의 찬성으로 김 동문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고 이사회 의안으로 부의했다.

총동창회가 지적한 김 동문 징계 사유는, ①총동창회 로고를 도용하여 개인서신을 총동창회 공식문서인 양 위장한 사문서위조 행위 ②동창회보 구독 동문들의 개인 주소지 정보를 허락없이 유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③근거 없이 총동창회 집행부 임원에 대한 심각한 개인 명예훼손 행위 ④허위사실 유포 ⑤총동창회 사무총장 사칭 ⑥총동창회 사칭 밴드 개설 등이다. 사법적 조치는 제외됐다.

지구동창회 방문·상견례로 결속 다져

김 총동창회장, 강서·중부산·사하 집행부 만나

지난 1월 29일 급작스럽게 제38대 총동창회장직에 오른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이 개별 지구동창회를 방문하거나 총동창회관에서 상견례를 갖는 등 총동창회 조직의 안정과 단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서지구는 직접 찾아갔고, 중부산과 사하지구는 총동창회관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오는 4월 16일 남부산지구, 21일 부산진·연제지구, 26일 동래·금정지구, 28일 해운대지구와 상견례를 갖는다.

○...김 총동창회장은 지난 2월 26일 오후 박종찬(25회) 고문, 현웅열(29회) 사무총장과 함께 강서지구동창회를 방문했다. 이날은 가덕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된 날이라 강서지구 동문들의 기분은 한층 고조되었다.

김 총동창회장은 이날 강서지구동창회의 발전상을 격려하고,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김택영(26회), 백영호(28회) 두 고문이 다져놓은 기반 위에 회장직을 맡은 김종규(31회) 회장은 특유의 위트 넘치는 말로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고문이 이날 주대비용 전액을 찬조했다.

○...김 총동창회장과 중부산지구동창회 집행부 간 상견례가 지난 3월 25일 오후 총동창회관 우미옥식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서 김 총동창회장은 전통의 중부산지구가 보다 활성화 되어 총동창회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영학 중부산지구동창회장은 총동창회관이 소재하는 원도심의 지구동창회로서 총동창회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 50만원을 전달했다.

○...김 총동창회장과 사하지구동창회 집행부 간 상견례가 지난 4월 2일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최승호 사하지구동창회장은 “박종찬 고문이 꽃을 피운 자리에 김대욱 회장이 큰 열매를 맺고 있다. 사하지구도 큰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총동창회장은

“사하지구는 어린 시절을 보낸 깊은 연이 있는 곳이다. 사하지구에서 좋은 기운을 많이 보내 달라”고 말했다. 박 고문은 이 자리서 “최근의 총동창회 사태와 현재 상황을 보면 전화위복이란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김 총동창회장이 ‘뜨거울 때 때려라’는 말처럼 큰 ‘행보’를 내디뎠다”라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지원금 50만원, 박 고문은 격려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사하지구동창회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기념품 Y셔츠(류명석 31회 동문 제공)와 양말(프랑코 페라로·신동훈 38회 동문 제공)을 선물했다.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강서지구동창회를 방문했다.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최승호 사하지구동창회장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이영학 중부산지구동창회장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지구회장단, 총동창회장 초청 골프

김 총동창회장 “물 흐르듯 이끌겠다”

총동창회장 초청 지구회장단 골프대회가 지난 2월 18일 정산CC에서 열렸다. 부산시내 9개 지구회장단은 제38대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구동창회간 결속을 다짐하고자 이번 대회를 가졌다. 차기 용마골프회 회장으로 내정된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동창회장이 주관하고, 박종찬(25회) 고문이 장소 제공에 협조했다.

이날 대회는 오후 1시에 티업하여 5

시 50분께 마쳤다. 영하의 날씨에 바람도 불어 극기훈련을 방불케 했지만 화



지난 2월 18일 정산CC에서 총동창회장 초청 지구회장단 골프대회가 열렸다.

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단합을 다졌다. 김 총동창회장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를 마치고 사상 소재 호포마을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서 김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를 물 흐르듯 이끌어 가겠다”면서 지

구동창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지구동창회장들도 김 총동창회장의 건승을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참석자=김대욱 총동창회장, 박종기 28회 동기회장 겸 모교80년사편찬위원(해운대지구 정윤희 회장 대타), 정순길(30회) 중부산지구 부회장(이영학 26회 중부산지구회장 대타), 김종규(31회) 강서지구회장,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회장, 정용운(32회) 동래·금정지구회장, 이윤조(33회) 부산진·연제지구회장, 최승호(36회) 사하지구회장.

◇찬조=저녁식사-김 총동창회장, 점심식사-박종기 위원, 그늘집 간식-김종규 회장.

<기사 1면에서 받음>

이날 총동창회 측 참석자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자리서 김 총동창회장은 학교 측에 “명문고로서의 모교 위상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면서 좋은 신입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과 좋은 대학 진학 외 명문 고교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 등을 요청했다.

이날 학교 측은 모교 후배들의 보다

높은 학업 성취와 교사들의 교육적 열정을 얻어낼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모교발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두고 2차 협의회(3월 24일 개최)를 갖기로 했다. 총동창회는 여기서도 출된 방안을 토대로 모교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차 협의회 자리서 학교 측은 총동창회(용마장학회 포함)의 야구부 지원을 비롯한 기존의 지원은 별개로 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초점을 맞춘 총 12

가지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매년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경남고 백 교장은 “동창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타교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분위기 조성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교사들에게 사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진심어린 지원책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동창회장은 이날 “학교 측의 제안을 가능한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

를 밝혔다.

김 총동창회장은 모교발전기금 조성 관련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규정이 바뀌어 지정기부단체 지정 절차가 마무리 될 6월경부터 모금운동을 본격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동창회장은 기존 개인 기부 6,900만원을 기록하고 있어 연내 기부금 총액이 5억원을 넘게 돼 등급별 명칭 부여자로서 첫 ‘다이아몬드급’ 기부자가 된다.

“경남고 학력 중하위”... 획기적 대책 없으면 ‘빛바랜 명문’

대학입시 성적 하락 누적돼 우수 중학생들 입학 외면 총동창회 주도 발전기금 모아 지원 쏟아야 회생 가능

총동창회 집행부가 경남고 재학생 학력신장에 초점을 맞춘 모교 발전방안을 학교 측과 함께 마련했다. 두 차례의 모교발전방안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에서 마련한 모교발전 방안 마련의 취지, 협의회 과정, 12개 방안의 내용, 재원 조달 방법 등을 점검해 본다.

■ 모교발전 방안 마련의 취지

학교의 수준 평가는 무엇보다 재학생의 학력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모교 경남고의 수준은 그동안 누구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후대에까지 ‘명문고’의 명성을 이어갈 수 없는 처지이다. 과거 학교 이전까지 거론되었지만 불발로 그쳤고, 그동안 이렇다 할 개선책을 찾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경남고 백영선 신임 교장은 총동창회 집행부와 상견례 자리에서 모교의 학력수준을 부산 남자고교에서 ‘중하(中下)’로 진단했다.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이 소위 ‘총대’를 뿔 각오를 했다. 이 자리서 김 총동창회장은 학교에 “명문고로서의 모교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학력 수준은 실제 우수 중학생의 진학이 핵심이다. 이들이 많이 모교에 입학하여 좋은 교육환경을 만나면 학력신장은 불문가지이다. 하지만 고교진학 현장에서 경남고는 인기 있는 학교가 아니다. 고교 진학 선호도에서 뒤쳐져 우수한 중학생들이 찾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그동안 ‘숨기고 싶은’ 대입시 성적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목고의 존재와 더불어 신흥 명문사립고들의 출현은 실재상황이다. 동문사회는 모교 경남고의 찬란한 옛 명성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빛바랜 명문고’의 실상을 외면해 왔다.

‘명문 출신’이란 자긍심은 용마의 정신적 자산이다. 이를 후배 세대에 더 이상 물려줄 수 없다면, 훗날의 ‘경남중고인(人)’은 무엇으로써 우정과 단합을



총동창회와 경남고 간 1차 모교발전방안협의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 왼쪽부터 박종기 80년사편찬위원, 김은주 경남고 행정실장, 조민형 교감, 김대욱 총동창회장, 백영선 교장, 현응열 사무총장, 박종찬 고문, 김종명 동창회보 편집주간.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말할 수 있겠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문제를 자각하고 해법 찾는 노력을 시작한 것이 큰 진전이다. 발전 방안의 실효성과 이를 뒷받침할 재원 조달의 지속성에 발전방안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추진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실행계획과 함께 사후 검증 장치를 마련해 이번 모교 발전 방안이 경남고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1차 모교발전방안협의회 내용

김 총동창회장과 경남고 백영선 신임 교장 간 상견례를 겸한 1차 모교발전방안협의회가 지난 3월 8일 경남고 회의실에서 열렸다. 총동창회측에서는 김 총동창회장 외 박종찬(25회) 고문, 박종기(28회) 80년사편찬위원, 현응열(29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고측에서는 백교장 외 조민형 교감, 김은주 행정실장(3월 1일 새로 부임)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김 총동창회장은 “현재 경남고의 학업적 수준을 냉정히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고문은 “이제는 모교 지원에 눈을 돌릴 때이다. 재경동창회의 모교 지원이 미미하다. 총동창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기숙사 운영의 효율성과 유능한 교사 유치 방안 등을 물었다.

백 교장은 답변에서 “경남고의 학업적 순위를 매기긴 어렵지만, 부산지역 남자고교 중에서 상중하로 따져 ‘중(中)’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의 낙후성이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백 교장

은 “대입시 수시전형이 60~70%이다. 수능 성적만으로는 안 된다.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가 좋게 나와야 한다. 따라서 기숙사의 효용 가치가 예전의 30~4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서 학교 측은 모교 후배들의 보다 높은 학업적 성취와 교사들의 교육적 열정을 얻어낼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양측이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총동창회는 여기서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모교지원방안을 강구할 뜻을 밝혔다.

이 자리서 부산고 동창회의 모교 지원 사례가 언급되었다. 부산고 동창회는 모교에 매년 연초 3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차 모교발전방안협의회 내용

총동창회와 경남고 간 ‘모교발전 방안 협의회’ 2차 회의는 지난 3월 24일 경남고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학교 측이 마련한 모교발전방안을 두고 총동창회와 토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초점을 맞춘 총 12가지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총동창회는 학교 측이 제안한 이번 모교발전 방안을 적극 수용키로 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

재원 마련 방안을 찾기 로 했다.

2차 협의회에는 총동창회 측에서 김 총동창회장을 비롯, 고(故)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 박종찬(25회) 고문, 박종기(28회) 80년사편찬위원, 현응열(29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고 측에서는 백교장 외 조민형 교감, 김은주 행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 12개 모교발전방안

내용(소요 예산)

- ①학생복지-특식(2,000만원)=월 1회 동창회 제공 특식.
- ②학생복지-기숙사 지원(1,500만원)=기숙사 운영 시 제공.
- ③학생학력신장-신입생 지원(250만원)=오리엔테이션 비용. 식대·간식·특강 등.
- ④학생학력신장-동아리 지원(1,000만원)=합창·봉사·심화동아리·영재학급 등.
- ⑤학생학력신장-학생자치활동 지원(1,000만원)=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기여.
- ⑥학생학력신장-우수학생(1,500만원)=학년별(5명×3), 학기별 우수학생에 50만원 지급.
- ⑦학생학력신장-학력평가(540만원)=학년별(12명×3), 3회 학평 우수학생에 5만원 지급.
- ⑧교원활동지원-명절선물(200만원)=교육공무직 대상(교원 제외) 설·추석 선물.
- ⑨교원활동지원-장기근속(150만원)=15명에 10만원 상당 기념품 전달.

<기사 4면에 넘김>



총동창회와 경남고 간 2차 모교발전방안협의회 모습. <사진=박종기(28회) 편집위원>

“저열한 동문 분열 획책은 결코 하지 말았어야”

‘괴문서’ ‘괴밴드’ 위법적 책동 응징…경위 규명 필요

김경진(27회) 동문 ‘회원자격 상실’ 파문

충동창회장 선출 불신임 소동의 여파가 갈등과 불화의 핵으로 잉태되어 동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나아가 동문사회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연이은 ‘괴(怪)문서’ 발송과 ‘괴밴드’ 개설을 두고 말한다. 이는 동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한마디로 ‘괴상한 책동’이다. 악의적이며 치졸하다. 그 책임을 물어 김경진(27회) 동문(이하 김 동문)의 회원자격이 상실 되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취임한 김대욱(29회) 제38대 충동창회장의 체제가 안착하기 전에 흔들려 보겠다, 뒤엎어버리겠다는 불순한 기도임을 대다수의 동문들은 알고 있다.

지난 2월 3일 무렵 동창회보 구독 동

문을 대상으로 한 1차 우편물 발송은 김 동문이 한 행위였다. 충동창회 공식 대봉투를 위조했지만, 자신의 명의를 담은 개인 주장을 펼친 내용이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대부분 허위 주장이다. 김 동문 개인명의로 글을 비롯하여 박종찬(25회) 충동창회장(작성 당시의 직책으로 표현·이하 동일)의 글, 박성철(29회) 1수석부회장의 글, 박 1수석부회장이 발송했던 내용증명 사본 등 모두 4가지의 유인물을 충동창회 공식 로고를 박은 갈색 서류봉투에 담았다.

2차 우편물은 지난 3월 11~13일 동문가정에 배송됐다. 이 우편물 또한 충동창회가 발송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봉투이다. 내용물은 김 충동창회장 명의로 발송한 김

동문 수신의 ‘회원징계 절차에 대한 알림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의 건’ 공문과 이 공문에 대한 김 동문의 답신, 그리고 명의를 ‘경남중·고 충동창회장’이라고 쓴 박성철(29회) 전 1수석부회장(이하 박 동문)의 ‘작금의 상황에 대한 입장’ 제하의 주장 글 등이다. 이 우편물의 발송인이 충동창회로 돼 있다. 발송인이 명확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뿔뿔하지 못함을 자인한 것이다. 비겁한 행위이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째부터는 김 동문이 ‘경남중·고 충동창회 용마밴드’라는 명칭으로 동문들을 초대했다. 물론 충동창회 명의 도용이다. 많은 동문들이 어리둥절해 했다. SNS를 통한 분열 책동이라 분석된다.

이 3가지의 ‘괴상한’ 행위는 충동창회에 나쁜 영향만 줄 뿐이다. 자신들이 주

장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충동창회와 동문들이 기꺼이 이를 감내하란 뜻이 담겨 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박 동문이 충동창회장 선출 불신임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적법한 절차를 찾아 이의제기 하는 게 옳다. 기왕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사회 개최와 결과까지 원천무효라고 주장한 바도 있으니 법적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물론 소송이 물고 올 역풍과 그 파장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다. 승산이 있다면 소송을 하고, 없다면 이사회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괴문서와 괴밴드 등을 이용한 충동창회 분열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최소한의 도리이다.

2차 괴문서에서 밝힌 박 동문의 입장에 대한 김 충동창회장과 박종찬(25회) 고문의 반박을 5면에, 괴문서 사건으로 ‘충동창회 회원자격 상실’의 징계를 받은 김 동문 주장의 진실 규명과 징계 사유 풀이를 6, 7면에 각각 신는다.

용서 못받은 김경진(27회) 동문 ‘일탈’ 비대면 임시이사회, ‘회원자격 상실’ 압도적 통과

현응열 사무총장 인준안 가결

지난 3월 30일에 개최된 충동창회 비대면 임시이사회는 김경진(27회) 동문에 대한 ‘회원자격 상실’의 찬반을 묻는 안건이 골자였다. 이날 찬반투표에 참가한 이사는 모두 90명이었다. 74명이 찬성, 16명이 반대했다.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가 나게 된 것은 김 동문이 보여준 여러 가지 일탈행위가 회원으로 함께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날 이사회가 개최되기까지 김 동문은 1차 우편물 소동에 이어 충동창회 사칭 밴드 개설, 2차 우편물 소동 등을 벌였다. 3가지의 대형사건을 한 달 열흘 사이 연달아 터트렸다. 동문사회에 던진 충격과 자괴심은 엄청났다. 그것은

이번 비대면 임시이사회의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

충동창회는 그간 집행위부회장단회의를 소집, 김 동문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김 동문은 책임을 전가하는 회신을 보내왔다. 다시 비대면 집행위부회장단은 김 동문의 ‘회원자격 상실’안을 확정하고 이사회에 부의했다. 이사진 140명에 투표율 64%, 82%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 동문은 학적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 동문 자격은 유지할 수 있으나, 충동창회 회원으로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현응열(29회) 사무총장에 대한 인준안이 찬성 97, 반대 3으로 통과 되었다.



〈사진=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 김경진 동문 소명자료 제출 요구 공문과 제출한 소명자료. 2차 우편물 소봉투와 1차 우편물 대봉투(각기 아래는 위조된 것. 위 사진은 진본).



〈기사 3면에서 받음〉

- ⑩교원활동지원-교직원워크숍지원 (1,200만원)=부장회의, 전체회의 각 3회씩-전문성 제고.
- ⑪학교환경개선(2,000만원)=본관·과학관 리모델링 대비, 의자·도서 등 교체.
- ⑫기타=크롬북 지원. 개당 50만원. 한 학급 시범적 운용 시 1천만원 소요. =선배 멘토링 진로 특강.

■재원 조달 방안

모교발전 방안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충동창회는 김 충동창회장의 초거액(4억4,000만원) 기부를 핵으로 해서 뜻있는 동문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기대하고 있다. 벌써 몇몇 동문은 거액의 기부 의사를 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동창회에서는 젊은 기수 동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충동창회관 건립기금 모금으로 모금 피로도가 쌓여 있는 터에 코로나19 사태가 가중 시킨 경제 침체 등 악조건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모교의 학력신장 역시 화급한 과제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게 많은 동문들의 생각이다. 더군다나 재경 측(재경 경남중고발전위원회와 재경 용마장학회가 70억원 가량 기금 보유…

재경동창회는 모교지원 안 하는 구조)의 협력 기대는 힘든 상황이다(참고로 재경 측은 지난해 2,661만원의 모교지원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충동창회가 모교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에 처했다.

충동창회는 이렇게 모아진 기금을 활용하고, 충동창회관 임대수입 등을 합치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 동문 일벌백계’ 징계가 중론

집행위부회장단회의, 소명 기회는 주기로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이 취임 이후 공식 주재하는 첫 집행위부회장단회의가 지난 2월 17일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신입 집행부 및 집행위부회장단 상견례, 집행위부회장 보직 위촉장 수여, 그리고 의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전임 회장이 총동창회를 반석 위에 올려놨다 마음 든든하다. 앞으로 열린 동창회를 운영하겠다. 어떤 현안이든 기탄없이 논의하고 누구나 볼 수 있고 투명하게 하겠다. 동문들이 마음이 끌리고 다가가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안토론으로 김경진(27회) 동문의 일탈행위에 대한 대책이 상정되었다. 이 자리서 “구성원이 꼭 지켜야 할 양식은 있다. 김 동문의 행위는 질이 나쁘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전임 집행부를 사실과 다르게 매도했다” “후배들에게 좋은 조직을 물려줘야 하는데 묵과할 수 없다”는 중징계론과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아량을 베푸는 것도 좋겠

다. 기회를 한번 주자”는 신중론도 나왔다. 고(故) 남진현(19회) 자문위원장 겸 총동창회관장은 “잘못을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 기장을 세우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 동문의 일탈행위는 ‘회원자격 상실’의 징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줘서 그 내용을 검토 후 다시 집행위부회장단 회의를 거쳐 이사회에 부의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

이날 다른 의안으로 재경동창회 측의 총동창회 호칭, 즉 ‘부산동창회’ 지칭에 대한 대응 안이 있었으나 앞선 의안토론이 길어져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김 총동창회장은 회의 모두(冒頭)에 “올바른 용어 사용은 대화의 가장 기본이다. 총동

창회를 ‘총동창회’라고 부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의안은 더 이상 논의의 필요성이 없었다.

◇참석자=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 현웅열(29회)총동창회 사무총장, 김현태(30회) 수석부회장, 류명석 정책담당부회장, 오민일(이상 31회) 조직담당부회장, 이종휘(32회) 직능담당부회장, 김법영(33회) 의료담당부회장, 박진용(36회) 봉사담당부회장, 오희진(38회) 야구1담당부회장, 박근태 동호담당부회장, 윤원욱(이상 39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집행위부회장단회의에서 김대욱 총동창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박성철(29회) 동문 입장글에 대한 김대욱(29회) 회장·박종찬(25회) 고문 반론

지난 3월 11일 무렵 동창회보 구독 동문가정에 배달된 2차 ‘괴문서’에는 박성철(29회) 前 1수석부회장이 ‘총동창회장’으로 칭하여 작성한 ‘작금의 상황에 대한 입장’이란 글(사진)이 담겨 있다. 이 글은 이미 29회 동기회 밴드에 올랐던 것으로 이제는 전체 동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되었다. 글 내용에 실명과 직책으로 거론된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과 박종찬(25회) 고문의 반론을 요약해 게재한다.

■김대욱 총동창회장의 반론

①인격적 공격=나를 총동창회장이라는 감투에 눈이 멀어, 또 사업적인 이득을 꾀하려고, 최소한의 사리분별도 없이 총동창회장 자리를 탐한, 그리하여 29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파렴치한쯤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격을 난도질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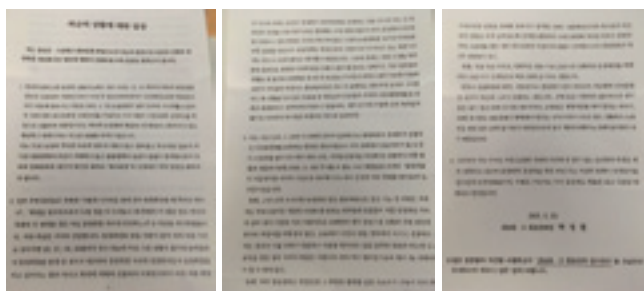
②이번 사태의 발단=박성철 동기의 잘못된 사무총장 인사에 있다. 그 인사가 어떻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박종찬 고문이 자세하고 곡진하게 지적했지만 무시되었다.

③박성철 동문의 처신=커다란 혼란을 야기한 사람으로서 총동창회에 자신의 인사가 왜 정당했는지를 해명하지도 않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조치도 없었다.

④어처구니없는 후속 인사=논란이 된 사무총장 후보가 회보나 신문 편집의 무경험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창회보 편집주간으로 기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충격적이었다.

⑤(본인이)97%의 찬성률로 총동창회장에 선임된 배경=박성철 동문이 전 집행부를 적폐집단으로 모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나아가 투표 전날 소위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총동창회 소속 절대다수의 선후배들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결과가 투표로 나타났다.

⑥총동창회장 후보(김대욱)를 사퇴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는 주장=▲사퇴의사를 밝혔어도 박성철 동문 총동창회장 선출 건은 이사회 통과 불가능. ▲사퇴의사를 밝힐 명분이 없음. 이번 사태 발발 후 박 동문은 (김대욱에게) 어떠한 종류의 연락이나 입장표명도 없었다. ▲박 동문 개인의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된 일에 29회 전체를 끌어



들여 29회를 분열 시켰다.

■박종찬 고문의 반론

①“등 떠밀려서 총동창회장후보 되었다”=2019년 29회 본부동기회 총회에서 추후 총동창회장 후보로 박성철, 김대욱 동문을 선정하였다. 29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2020년 3월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 후보에 박성철, 차기회장 후보에 김대욱 동문을 지명했다. 내용증명 발송, 총동창회 봉투 등 사문서 위조, 총동창회 사칭 밴드 개설 등 최근까지 상황만 보더라도 ‘등 떠밀려서 회장 후보 수락’은 결코 아니다.

②김대욱 동문과 사업상 연결 되어 있다=같은 조선해양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김 동문은 기장품 관련, 본인은 선신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상호 사업 연관성은 전무한데 호도하고 있다. 쉽게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스포츠용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스키용품을 팔고 또 한 사람은 서핑용품을 팔고 있고 있는 모양새이다. 서로 이권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 처럼 잘못 표현했다.

③특정인과 그 주위의 홍위병 같은 극소수가 주동이 되었다=특정인은 고(故)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을 지칭하고 있는데, 홍위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이

해 불가능하다. 이들의 실체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야 하며, 이들이 주동이 되어 총동창회에 무슨,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밝혀야 한다. 총동창회를 음해하려는 이들의 이야기나 근거 없는 소문을 듣고 ‘홍위병’이란 용어를 썼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박성철 동문이야말로 소수의 ‘홍위병’에 둘러싸여 현실 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반문하고 싶다.

④전임회장도 허수아비=▲(본인은)허수아비 노릇한 회장이 아니다. 허수아비는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있는 존재이다. 어떤 허수아비가 자기 개인 돈을 왕창 써가면서 해외지역동창회 복원을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을 가겠는가. ▲회장 임기만 채우면 되는 허수아비가 총동창회관 마련을 위해 기부금 구걸(?)을 하려 다녔겠는가. 남의 돈 받는 것 쉽지 않다. 하지만 모교 발전의 기폭제가 될 회관개관에 대한 진정한 본심이 1,200여명의 동문들에게 전달되어 본인의 마중물 1억원이 최종 21억8천만원 기금으로 조성돼 지난해 6월 20일 회관개관식을 갖게 되었다. ▲어떤 허수아비가 거의 모든 동문회 모임에 참석하겠는가. 이제는 막강한 지구동창회들, 직능 및 동호회들로 구성된 총동창회가 되었다. ▲집행부도 연회비를 납부하는 100여명 부회장단으로 구성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수시 모임으로 폭넓은 대화의 채널을 확보했으며 동문들의 바람을 청취했다.

⑤총동창회 용마밴드 개설에 대하여(박성철 동문 입장 유인물에 ‘밴드 참여 독려’ 첨언 관련)=총동창회를 사칭한 괴밴드이다. 가입자 대다수가 고향 부산을 떠난 재경 동문들이므로 알려져 있다. 박성철 동문은 이들의 수장으로 떠받들려져 괴밴드에 축하의 메시지까지 올렸다. 총동창회를 분열 시키려는 저의와 행위를 축하한 것과 다름없다.

총동창회 밴드에는 승승장구하는 동문들의 업적소식, 동문 구인소식, 자발적인 기부소식, 지구별 동문 방문 소식 등 선후배 동문들을 씨줄과 날줄로 엮는 동문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내용들이 많다. 동문사회의 소통창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에 용마의 천평칭(天平秤)은 엄중했다

■김경진 동문 주장 허구성 진단

〈박종찬(25회) 전 총동창회장 관련〉

①차기회장을 본인과 맞는 회장을 선출시키고자 회칙을 개정=회장 임기와 관련해 ‘2년, 연임 가능’을 ‘1년, 연임 가능’으로 수정하고, 1수석부회장과 2수석부회장 제도를 둔 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이 수정 내용이 ‘본인과 맞는 회장’과 연관성 있는지 의문이다. 이 회칙 개정은 회장 임기를 줄여 재정적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열심히 회장직을 수행토록 했고, 미래세대에 활력의 나이에 회장직이 보다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였다.

②26·27 2기수는 기부금을 많이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장선출자격 박탈로 제외…계획적이고 독선적 행위로 회장선출 제도를 개정한 것=연 5천만원의 회비와 각종 행사 협찬금 5천만원 등의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총동창회장은 회장후보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총동창회 임원(연회비 100만~200만원)으로 활동하거나, 총동창회장에 버금가는 단체장(이전 사례로 보아 대학총장, 부시장급 이상 등)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박종찬 회장 재임 시 26·27회에서는 총동창회 임원을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총동창회장은 하루아침에 출현할 수 없고, 출현되어서도 안 된다. 회장 임기 수정은 보다 미래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다.

③임기가 만료된 전임회장이 직권으로 신입회장직을 박탈하는 비토행위를 행사=박성철(29회) 1수석부회장은 비대면 정기 이사회에서 회장 선출 투표에서 불신임 당한 것이다.

④비대면 방법으로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개정한 후 회장지명을 철회하고 회장직을 박탈=비대면 정기 이사회에서는 회장 선출 투표와 함께 회칙 개정이 개별 의안으로 동시에 의결이 이루어졌다.

⑤비대면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통하여 박수를 치면서 회장추진 및 승인을 하면 되는 것임에도 협박성 행위를 하는 것=비대면 상황에서는 박수 칠 수도 없고, 의안에 대한 이사들의 의결 과정이 있을 뿐이다. 물론 사전에 의안에 대한 내용은 우편물로 숙지된 사항이다.

‘회원자격 상실’이란 중징계를 당한 김경진(27회) 동문은 문제의 1차 우편물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다. 대부분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회원자격 상실’이란 사상 초유의 흑역사를 기록한 사건인 만큼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김 동문 주장의 허구성을 각 항목별로 순서대로 진단한다.

⑥재임기간 중 과거 회칙을 독선적으로 가장 많이 개정시킨 행위=총동창회가 보다 발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해 후임자들이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 것이다. 많은 개정 회수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의미이다.

〈용마대상수상자 관련〉

⑦수상사유가 전임회장 사건으로 수상한 것인지=지난해 10월 28일 열린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3명의 후보 공적조서를 검토한 뒤 남진현 후보를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⑧대다수 동문들이 공정하지 못한 수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상 취소를 요구=대다수 동문의 생각을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수상 취소를 요구한 동문은 단 1명도 없었다.

〈총동창회관 기념머릿돌 및 회관장 직책부여 관련〉

⑨총동창회관장 남진현(19회), 총동창회장 박종찬(25회)으로 기입 제작설치한 것은 잘못=신축건물 준공 시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해준다. 지적한 내용이 남 회관장 이름을 왜 기입했느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총동창회관은 신축이 아니고 전면 리모델링 건물이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에서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기획, 남진현 자문위원장 겸 총동창회관장이 감독을 맡아 진두지휘 했다. 특히 남 총동창회관장은 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 중 거의 매일 현장을 방문, 작업자들을 독려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하는 등 성공적 리모델링 공사에 큰 공을 세웠다. 건립기금 모금과정에서도 선배기수들의 참여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 같은 공을 인정해 머릿돌에 이름을 새긴 것을 두고 시비를 건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초대 총동창회관장을 명기해두는 일 역시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박 총동창회장이 자신의 이름만

올리는 것은 동문 선후배간의 정리(情理)가 아니라는 판단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⑩총동창회 초대 회관장 선임 관련 의문점=남진현 초대 총동창회관장은 2020년 3월 25일 영주동 코모도호텔에서 약식으로 열린 제37차 정기 이사회 및 총회에서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추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이다. 추후에 용마장학회 이사회에서 추인 받았다. 남 회관장은 리모델링 공사 감독을 맡아 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동문 소통의 폭이 넓어 회관 방문 동문을 잘 응접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 높이 평가됐다.

〈총동창회 회관 구입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박종찬 고문이 밴드에 올린 ‘동문역사 기록의 중요성(3)’편에 자세한 내용 수록

⑪차후 수입, 지출에 있어 수익금을 기대할 수 없는 골치 아픈 건물이 될 수도 있을 것=2020년 6~12월 임대수익이 4,5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중 2,500만원이 장학회 수입으로 넘겨졌다.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되면 수익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지가치 효율성이 ‘매우 우수’로 평가되고 있다.

⑫건물 구입 당시 누구 소개로 계약/인테리어 공사는 누구와 의견을 개진하여 공사를 실행하게 되었는지=총동창회관은 회관 후보지 추천을 받았지만 여의치 않아 박종찬 회장이 부동산중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찾아낸 건물이다. 놀랍게도 건물주가 이부성(19회) 동문이었다. 리모델링 공사는 용건회 소속 동문들의 도움을 받아 실행하게 됐다.

⑬건물구입비와 공사비내역은 2020년도 결산총괄보고서에 없는지/감사는 받았는지=동창회보 제430호 7면에 총동창회관 개관 지출 내역이 게재돼 있으며, 총동창회 사무국에 공사 백서가 비치돼 있다. 누구든 방문하여 볼 수 있도록 해두었다. 용건회에서는 공사 완료 후 자세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7월 7일 임시총회에서 정식보

고한 바가 있으며, 공사비결산 내용은 32페이지에 달하는 사업비 분석보고서가 나와 있다. 지난 3월 16일 장학회 정기 이사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제출, 감사를 받았다.

⑭불필요한 소요공사비 지출에 대하여 많은 의문=동문 결속 강화와 모교 장학지원을 위한 수익 제고라는 목적에 맞게 공사했다. 타고 동문회관이 수익 지중인데 반해, 동문들이 즐겨 찾고 활용 가능하도록 건물 전체를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명예에 걸맞게 리모델링했다. 핵심적인 공사는 공개 입찰을 하여 공사비 낭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했다.

⑮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불법사용=주차장 확보 등 막대한 추가비용이 드는 점과 총동창회관이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점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 내린 조치로서 별 문제가 없이 사용 중이다.

⑯건물관리에 지식이 없는 분이 동창회관장직을 맡고 있는 것=동창회관장직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건물관리는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동문들이 건물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집’처럼 돌보기로 하였다(동창회보 제 430호 16면 참조). 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회관장이면 관리 전문지식 보유 여부는 문제가 안 된다.

〈동창회보 독선적 기사 게재 관련〉

⑰경총회(총무단협의회)를 총동창회 조직에서 누가 강제로 탈퇴행위를 시켰는지…회보조직 내 탈퇴토록 지시한 것인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총동창회는 산하 조직을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탈퇴를 지시하여 그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주요 사안은 집행위부회장단(이전에는 분과위원장회의)의 회의에서 토론과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보다 더 중요한 안건은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경총회는 후배기수가 가입하지 않는 미래가 없는 정리대상이었다. 젊은 후배 기수들은 이미 경총회를 외면하고 ‘경친회’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었다.

⑱동창회보는…집행부가 못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야회와 우리들만남 모임 등 동창회 조직에서 배척 내지 탈퇴시킨 행위 또한 독선적인 행위

〈기사 7면에 넘김〉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일탈’ 판단

총동창회 이사회는 김경진(27회) 동문에 대한 ‘회원자격 상실’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결말을 초래하게 된 김 동문의 일탈행위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인식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 외 사문서위조 행위, 동문 개인정보 유출, 동문 명예훼손, 총동창회 사무총장 사칭, 총동창회 사칭 밴드 개설 등 명백한 위법적 행위에 대해 각 항목별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해 본다.

■사문서 위조 행위

김 동문은 1차 우편물에 개인명의로 주장을 담은 글을 비롯, 4가지 유인물을 갈색 서류봉투에 동봉해 동창회보 구독 동문들에게 발송했다. 총동창회의 공식 로고와 함께 총동창회관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우편번호가 기재돼 있다. 총동창회 공식 서류봉투는 현재 흰색으로 바뀌었지만, 이전에 오랫동안 갈색을 써와서 동문이면 물론이고 누가 보더라도 경남중고 총동창회가 발송한 우편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소봉투를 사용한 2차 우편물 역시 총동창회가 발송한 것처럼 위장했다. 일부 동문은 총동창회가 발송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1, 2차 우편물 모두 총동창회 로고를 도용하여 총동창회를 사칭한 것이다. 어떤 변명과 구실을 내세워도 돌이킬 수 없는 범법행위, 즉 사문서 위조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동문 개인정보 유출

김 동문은 이번 우편물 발송 대상자를 동창회보 구독 동문을 타겟으로 했다. 대상자가 수 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편물 발송에 용이한, 잘 정리된 주소록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우편물 배송 동문 주소록 정보는 총동창회에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

다. 박성철(29회) 전 1수석부회장 측이 지난 1월 초 집행부 구성 준비작업을 위해 회원 명단을 요구해서 건네주었다. 총동창회장 선출 이사회 전이라 ‘집행부 구성 작업에만 사용한다’는 조건을 걸고 전달했다. 동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다. 하지만 김 동문은 약속을 어겼고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다. 동창회보 구독 동문 주소록 자료를 사문서 위조 행위의 우편물에다 사용했다. 사용범위를 한정해 입수한 개인 정보를 사용범위를 벗어나 개인 서신에 활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동문 명예훼손

김 동문은 1차 유인물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A4 3장 분량의 글을 담았다. ‘경남중고 총동창회 회원님들에게 드리는 글’ 제하의 이 글은 허위 주장으로 점철돼 있다. 동문을 기만하려다보니 표현이 자극적이고 공격성을 띠면서 도를 넘어버렸다. 표현상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다.

〈전임회장(박종찬5회)의 재임기간 중 실체(횡포)〉 부분

①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 회장의 부도덕한 억지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김 동문이 이 글의 첫 머리에 쓴 표현으로 글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

회장’이란 물론 박 전 총동창회장을 말한다. 역대 어느 총동창회장도 이뤄내지 못한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여 동문사회의 자랑이자 후배동문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박 고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이다.

②(박 전 총동창회장은) 재임 3년동안 ‘공’보다 ‘과’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고=공과 과의 과다 여부를 떠나 현실 파악을 못하는 ‘얼간이’ 정도로 비아냥거리고 있다.

③과한 행동과 독선적 행위 그리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전임 회장=마치 전 재군주의 망동을 연상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과격한 표현이다.

④(역대 회장들 중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아주 나쁜 회장으로 기억될 것=상대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유이다. 하지만 개인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여 세상에 공개할 때에는 책임이 분명 따른다.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⑤(총동창회를) 본인의 개인 회사와 같이 마음대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동창회가 개인 소유 동창회로 착각하고 있는지는 독재자의 전횡을 연상케 하는 말로서 박 전 총동창회장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이 아닐 수 없다.

〈용마대상수상자에 대하여〉 부분

⑤재경 및 총동창회원들 간에 원만하지 못하고 평소 평이 좋지 못한 남진현(19회) 동문=이 표현 또한 명백한 개인 인신공격이자 명예훼손이다. 평소 좋지 않았던 개인적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 세상에 공표한 것이다.

〈총동창회보 독선적 기사 게재〉 부분

⑥권력행사 행위로 회보를 변질 시킨 것은 공정성과 정직성을 잃은 아주 나쁜 독선적 행위인 것=이 주장은 동창회보 발행인 겸 편집인인 박 전 총동창회장과 편집제작을 맡은 김종명(29회) 편집주간, 그리고 편집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사건을 일반화하여 터무니없이 매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총동창회 사무총장 참칭

김 동문은 이번 개인 서신에서 ‘사무총장 김경진(27회) 올림’이라고 서술했다. 김 동문은 박성철(29회) 전 1수석부회장이 지명한 인물이다. 박 전 1수석부회장이 총동창회 이사회 투표에서 불신임을 받아 김 동문은 자동적으로 ‘내정자’ 지위를 상실했다. 박 전 1수석부회장이 김대옥(29회) 제38대 총동창회장 선출 이사회 결과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는 있을지 모른다. 현재 상태에서 김 동문이 자신을 ‘사무총장’이라 칭한 것은 ‘자격모용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다.

■총동창회 사칭 밴드 개설

김 동문은 지난 3월 2일 ‘총동창회 용마 밴드’라는 이름으로 밴드를 개설해 동문들을 초대했다. 동창회보 구독 동문들의 전화번호를 활용했다. 총동창회 공식 밴드가 이미 가동 중에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동문사회의 분열 말고는 달리 그 의도를 가늠하기 힘들다. 많은 동문들이 의아해 하며 심적 불편함을 토로했다.

〈기사 6면에서 받음〉

=2019년 1월 분과위원장회의에서 기존 산하단체 중에서 정체성이 모호하고, 기능이 약화되었거나 참가동문수가 12명이하인 단체는 정리키로 하고 공식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해당하던 경야회와 우리들만남은 총동창회 산하단체 자격을 인정치 않고 친목형 임의단체로 두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동창회보에 소상히 기록돼 있다. 덧붙여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박종찬 고문이 밴드를 통해 연재한 ‘동문 역사 기록의 중요성 2편’에 나와 있다.

〈총동창회 직원 인사 관련〉

⑩신승렬(36회) 사무국장을 20.10.7 무슨 이유로 의원면직을 시켰는지 해임

사유는 알 수 없고=신 전 사무국장이 밴드를 통해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 소상히 밝힌 바 있다. 자신의 취업문제로 임기 만료 전 사퇴한 것이다.

⑩후임 사무국장 채용 관련 의문 사항=신 전 사무국장의 임기 만료는 지난 2020년 말이었다. 6개월 전 후임을 인선하여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2020년 4월 7일자 동창회보 제428호 33면에 후임 사무국장 모집공고가 나갔다. 이 당시 응모자 중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총동창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윤원욱(39회) 동창회보 영상편집위원이 적임자로 발탁되었다. 회보 제429호(2020년 6월 4일

자) 33면에 관련 기사가 나와 있다. 신 전 사무국장의 퇴임은 10월 7일이며, 후임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서 바통을 즉시 넘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한 동창회보에는 ‘박성철 제1수석부회장과는 사전협의가 있었다’라고 기술돼 있다.

〈전임 회장의 아쉬운 행보 관련〉

②임기를 1년 연장하지 말고 기부금을 직접 집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일견 수궁도 가능해 보이나 현실성이 없는 말이다. 숙원사업이었던 총동창회관 구입에서 개관과 운영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박종찬 고문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 만약 제37대 총동창회장직을 그때(지난해 3월 정기

총회) 누군가가 이어받았다면, 과연 제대로 된 지금과 같은 ‘명품’ 총동창회관이 탄생했을지 의문이다. 박 고문이 지난해 연말 지금의 회관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고, 또 임기를 1년 연장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친 마당에 동창회관 건립은 영원한 숙제로 남을 뻔했다.

〈신구 회장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관련〉

②26·27·28회 3기 기수대표를 구성하여 총동창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26회와 28회는 동기회 차원에서 이 제안에 동조할 수 없음을 총동창회 밴드를 통해 천명한 바 있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부산동창회’ 호칭 논란

“재경이 ‘총동창회’라고 부르지 않으면 대화 않겠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단호한 입장 천명

“‘총동창회’라고 부르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

지난 2월 17일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단 회의에서 의안토론에 들어가기 전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이 모두 발언 형식으로 밝힌 내용이다. 2월 초에 야기된 재경동창회 회보 용마지발(發) ‘부산동창회’ 명칭 논란에 대해 단호하면서 명확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 자리서 김 총동창회장은 “올바른 언어, 용어의 사용은 모든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첫 걸음이다. 재경동창회에서 모교80년사 편찬 협력 등을 모색하겠다는 것은 좋다. 하지만 명칭 문제가 바로 잡히기 전에는 대화가 의미 없다. ‘총동창회’라고 올바르게 부른다면 어떤 대화도 허심탄회하게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동창회장의 발언은 ‘부산동창회’ 명칭 논란이 거세었던 지난 2월 10일 자신이 총동창회밴드(이하 밴드)에 올렸던 관련 ‘소고(小考)’와 같은 내용이다. 김 총동창회장은 소고에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재경동창회는 먼저 용어를 정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부산동창회’부터”라고 말했다.

■재경동창회의 ‘부산동창회’ 명칭 사용

이번 ‘부산동창회’ 명칭 논란은 재경동창회보 용마 제212호(2021년 2월 4일자) 지면 파일이 밴드에 오르면서 촉



발됐다. 재경소식을 알리자면서 올린 선의가 큰 파문을 가져왔다. 1면 톱기사 제목과 기사본문, 3면 기사에 ‘부산동창회’라는 용어가 나온다. 1면 톱기사는 재경동창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내용과 하창우(27회) 신임 재경동창회장의 인사말이며, 3면 기사는 하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하 회장의 인사말과 인터뷰를 읽어보면, 자신이 의도적으로 총동창회를 ‘부산동창회’라고 달리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과거부터 그렇게 해오다보니 그냥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준다. ‘부산동창회’가 시사하는 바가 무슨 의미인지를 별 인식 없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재경동창회는 근자에 들어 총동창회를 제대로 지칭하지 않고 있다.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4일자 용마지 제211호 17면 톱기사 제목과 본문에는 총동창회를 ‘재부 경남중고 동창회’라 지칭하였다. 윤원욱(39회) 총동창회 사무국장이 밴드에 올린 2020년 용마의 밤 행사 스케치를 발췌하여 전제하면서 총

동창회를 굳이 ‘在釜 경남중고 동창회’라고 표현하였다. ‘총동창회’라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다. 특히 이 기사에 윤 국장의 ‘바이라인(신문·잡지에서, 특종 기사 또는 기자의 수완·노력이 돋보이는 기사에 대하여 필자의 이름을 넣는 일)’까지 달아 마치 윤 국장이 ‘在釜 경남중고 동창회’라고 쓴 것처럼 보도했다. 이는 심각한 왜곡이자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 진상규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대목이다.

또 지난해 6월 4일자 용마지 제204호 6면 기사 제목에 ‘在釜 총동창회’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기사는 총동창회 동창회보 김종명(29회) 편집주간이 써준 것으로 본문에는 ‘총동창회’라는 표현이 그대로 실려 있다. 제목에 굳이 ‘在釜’라는 용어를 사용한 저의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부산동창회’가 시사하는 것

‘부산동창회’라는 용어에 담긴 의미와 사용 의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총동창회를 부산동창회로 지칭했을 시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 존재의 의미는 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남중고 졸업 동문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조직에서 단지 부산지역을 관할하는, 보다 하급 조직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부산동창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재경측은 상대적으로 총동창회와 동급 내지는 보다 우위의 존재감을 얻는 게 아닌 지 의구심이 생긴다. 서울에 살다 보면 ‘지방 경시’가 자연스레 익숙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총동창회 입장에서는 총동창회는 모교가 있는 고향에서 전국의 동문을 아우르는 대표성을 가진 조직이며, 재경동창회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동문조직 중의 하나이되 인적·재정적 능력 등 규모면에서 특출한 만큼 이를 인정하고 예우하는 수준의 조직으로 보는 것이다. 이 수준에서 소통이 잘 되고 화합의지가 있다면 바람직한 동문조직이 될 수 있다.

재경동창회 시각에서는 총동창회는 단지 부산 소재 동문조직이고, 재경은 총동창회와 무관한 별개의 서울 동문조직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총동창회를 경남중고 동문회의 대표성을 가진 조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식이 배어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재경에서 주도적으로 대표성을 갖겠다는 것도 아니다. 이럴 경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중심적 조직은 없게 되고, 자칫 동문 전체의 응집력은 약화될 수 있다. 물론 재경동창회 가입 동문들 모두의 생각이 이와 똑같지는 않다고 본다.

이번 사건과 관련, 총동창회 밴드에서는 재경동창회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다. 재경동창회가 ‘근본을 잊었다’ ‘무시한다’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통성을 부정한다’ 등 다양한 의사표출이 있었다. 밴드를 통해 당사자 해명 촉구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재경동창회측의 의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다. 김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라고 부르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처방을 내렸다. 시간을 두고 지켜 볼 수밖에 없다.

기고

黑歴史를 지우기 위한 고민

흑역사

최승호(36회) 사하지구 동창회장

‘흑역사’의 사전적 의미는 ‘없었던 일로 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라고 되어 있다. 부끄러운 일이라 다른 학교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동창회에서 회원을 제명(除名)시킨 일이 또 있었을까?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 기억에 없으니 차라리 다행이다.

그런 역사를 쓰지 않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 김정진(27회) 동문의 징계사유는 이미 동창회밴드에 공지되거나 논쟁의 대상이 된 바 있고 총동창회 이사회에 제출된 징계사유는, 첫째 동창회 사칭 사문서 위조, 둘째 명예훼손, 셋째 허위 사실 유포, 넷째 개인정보 도용, 다섯째 동창회 유사밴드 개설로 동창회 업무 혼선유발 등이다. 무엇보다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같은 사유가 제명을 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회칙 제2장 7조에 따라

회원의 징계를 결의할 수 있는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다수결에 의해 ‘회원자격 상실’을 결의하였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일이지만, 도대체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를 생각해 본다. 비위의 정도가 정말 심각하고 악의와 고의성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 본인의 잘못으로 동창회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었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손해가 심각하였는지도 생각해 본다. 동창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는 노력을 하였고 본인이 반성하여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도 생각해 본다. 남은 사람들이 수족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감내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본다. 도대체 다른 해결 방법이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본다. 지나간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 동창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회칙 제1장 2조). 가끔씩 우리 동창회의 목적을 이렇게 바꾸



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 ‘근검 자립하고, 규율을 지켜 자유롭게 살고, 책임을 다해 열려 사는데 목적이 있다’고. 근검 자립하고, 규율을 지켜 자유롭게 살고, 책임을 다해 열려 살면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모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흑역사까지 지우기 위해 달리 고민할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니, 흑역사를 하나의 흉터로 볼 수도 있겠다. 어떤 것이든 살아 낸 흔적이 흉터다. 흉터는 없는 것이 좋겠지만 무조건 부끄러워만 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흉터가 생겼다면 덧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언젠가는 지워질 것이다. 더 나아가 다시는 그러한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들 각자는 작금의 흑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누구든지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자의 좌표가 어디인지 한 번쯤 깊이 챙겨보았으면 좋을 듯하다.

“용마장학회 이사회, 원리원칙 운영”

이용흠(19회) 이사장, 회의 절차 준수·자료의 충실성 강조

2020년 결산 보고 및 승인

(재)용마장학회 정기 이사회가 지난 3월 16일 오후 총동창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2020년 용마장학회 결산 보고 및 승인을 위한 이사회였다. 결산서 주요 내용은 지난 이사회에서 걸려진 내용이라 별 문제 없이 승인됐다.

2020년 용마장학회 운영 결산서(목적사업회계)를 보면, 수입·지출 각 30억 534만원이 집행됐다. 수입은 전기이월금 26억4,776만원, 출연금 3억2,212만원, 수익사업전입금 2,5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출은 경상비 1,409만원, 목적사업비(모교지원) 9,867만원, 기본재산편입액 26억6,320만원, 정기에금 1억 2,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 동창회관 운영 결산서(수익사업회계)를 보면, 수입·지출 각 3억569만원이 집행됐다. 수입은 임대보증금 2억4,800만원, 임대료(부가세 포함) 5,725만원 등이며, 지출은 정기에금 2억원, 수익금 장학회 이관 2,500만원 등



지난 3월 16일 오후 총동창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용마장학회 정기 이사회 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을 기록했다.

사업연도말 재산(목록)은 기본재산 부동산 42억9,120만원, 보통재산 예금 2억2,937만원으로 합계 45억2,058만원이다.

사업실적으로 목적사업비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장학금 지급 130만원, 경남고 야구부 실내연습장 보수 지원 7,000만원, 경남고 기숙사 운영 지원 1,500만원, 경남중 영상장비 지원 737만원, 경남중 체육활동지원(야구부 동계훈련) 500만원 등 총 9,867만원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용흠(19회) 이사

장을 비롯, 남진현(19회) 상임이사, 이병찬(23회), 임태영(40회) 이사가 참석했다. 장학표(8회), 안강태(11회), 손영태(31회) 이사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용마장학회 이사회는 원리원칙을 준수해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장학회가 이제는 총동창회관을 운영하는 하는 만큼 이사회를 대강대강 할 수는 없다. 이사회 회의 절차의 준수와 회의 자료의 충실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타 토의 사항으로 이사회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정관의 허술한 부분에 대한 손질이 시급하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사회 개최 요건이 되는 참석 이사의 성원 요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고, 정식 정기총회 개최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에는 매 분기마다 이사회를 갖도록 했다. 특히 동창회관 운영을 고려해 감사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회계감사 외에도 업무감사가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이사회 참석자와 관련, 이사진외의 참석인물의 범위도 규정했다. 총동창회장은 장학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감안해 옵서버(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음) 자격으로 허용하고, 총동창회 사무총장, 사무국장, 동창회보 편집주간은 배석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김태우(27회) 감사의 사임으로 ‘결원 2개월 이내 보충’ 정관에 따라 조만간 감사 1명을 선임키로 했다.

한편 이날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경남고 재학생들의 학력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자신이 상당한 모교발전기금을 마중물로 내놓으며 기금 모금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학회 차원에서 기부금 영수증처리가 가능한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기부 목적사업비로 처리하면 영수증처리가 문제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보다 적절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기금 모금과 관련, 총동창회관 기금 모금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로도’가 쌓여 있어 보다 신중한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0년 모교 지원 총 1억4,407만원

경남고 1억995만원, 경남중 3,412만원

총동창회·용마장학회 집계

총동창회와 용마장학회가 지난해 모교인 경남중·고등학교에 지원한 규모와 내역이 드러났다. 양교 지원금 전체 합계는 1억4,407만원을 기록했다. 학교별로는 경남고 총 1억995만원, 경남중 총 3,412만원으로 집계됐다.

용마장학회는 경남고(소계 8,600만원)에 야구부 실내훈련장 보수 수리비로 7,000만원, 기숙사 운영비 1,500만원, 졸업생 장학금 100만원을 지원했다. 야구부 실내훈련장 보수 수리비는 지난해 총동창회관 개관 이후 여유 자금이 있었던 데다 경남고의 절실한 지원요구가 맞아떨어져 ‘톨톨’ 지원이 이뤄졌다. 또 경남중(소계 1,267만원)에는 영상장비 737만원, 체육활동비(동계훈련) 500만원, 졸업생 장학금 30만원이 지원됐다.

총동창회는 경남고(소계 2,395만원)에 졸업식 기념타월 150만원, 야구대회 출전 격려금 400만원, 명문고 야구열전 우승 축하금 100만원, 동계훈련비 1,500만원, 기타 245만원을 지원했다. 또 경남중(소계 2,145만원)에는 강

■ 총동창회 (용마장학회 포함) 경남중고 2020년 지원 현황				
구분	경남중		경남고	
장학회	졸업생 장학금	30만원	졸업생 장학금	100만원
	영상장비 지원	737만원	야구부 실내훈련장 보수 수리비 지원	7,000만원
	체육활동 지원(동계훈련)	500만원	기숙사 운영비 지원	1,500만원
	소 계	1,267만원	소 계	8,600만원
	강당 영상장비 지원	1,530만원	졸업식 기념 타월	150만원
총동창회	졸업식 기념 타월	115만원	야구대회 출전 격려금	400만원
	동계훈련 지원	500만원	명문고 야구열전 우승 축하금	100만원
			동계훈련 지원	1,500만원
			기타	245만원
			명문고 야구열전 우승 축하금 선행인 의	
- 마스코트 및 야구 열전 지원, 회원 방문 기념품 -			- 마스코트 및 야구 열전 지원, 회원 방문 기념품 -	
	소 계	2,145만원	소 계	2,395만원
학교별 집계	3,412만원		1억995만원	
전체 합계	1억4,407만원			

당 영상장비 1,530만원, 졸업식 기념타월 115만원, 동계훈련비 500만원이 전달됐다.

이밖에도 마스크 및 마스크걸이 지원과 회관 방문 기념품 전달 등이 있었다.

한편 재정동창회보(제212호)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한 경남중고발전위원회(경발위)는 2020년 결산서에서 모교인 경남고에 신입생 장학금 300만원, 교사업무추진비 1,200만원, 교사해외연수 961만7천원, 학교홍보물품 200만원 등 모두 2,661만7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중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재정 대학생 장학금으로 8,300만원을 사용했다. 재정동창회는 직접적으로 모교 지원을 하지 않는 체제이다.

각종 계정 입금 계좌 변경

총동창회의 각종 계정의 은행예금 계좌가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예금주는 ‘경남중고 총동창회 김대욱’입니다.

- ▲임원 연회비 및 기별분담금 입금 계좌 (부산은행) 101-2074-0331-09
- ▲기별야구후원금 입금 계좌 (부산은행) 101-2074-0336-01
- ▲회보구독료 입금 계좌 (부산은행) 101-2074-0332-05



“메로 구입 동문에 야구장학금으로 보답”

경남고 야구부에 2,160만원 기부 유법권(43회)·구자삼(45회) 두 동문

“앞으로도 선후배들이 구입하시는 메로는 야구장학금으로 적립시켜서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경남고 야구부 장학금 2,160만원을 전달(사진)한 구자삼(45회) 동문이 동문들로부터 격찬을 받고 한 말이다. 장학금은 사하구 장림동 소재 아이원수산 대표인 구 동문과 이 회사 회장인 유법권(43회) 동문이 함께 마련했다.

지난 설 명절 시기에 박홍규(24회) 자

문위원과 박종찬(25회) 고문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이 아이원 인터넷 메로 판매에 응해줘 그 성원에 ‘의미 있는 보답’을 한 것이라고 한다.

동문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수산업 업계도 어려운데 이렇게 귀감이 되는 기부를 한데 대해 ‘자랑스러운 용마들’이라고 칭송이 자자하다. 두 동문은 예전부터 꾸준히 아무도 모르게 야구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욱호(號)’ 순항…2021 총동창회 조직 완비

자문단 23명 구성, 곱절 이상 증가로 활약 기대

일반위부회장단, 50회까지 참가
집행위부회장단 40대 기수 늘어

2021 총동창회 조직표 12~13면 게재

김대욱(29회) 제38대 총동창회장 체제의 2021년 총동창회 조직이 완비되었다. 총동창회 이사회 구성원이 될 각 파트별 인선 작업이 지난달 중순 완료됨으로써 ‘김대욱호(號)’가 정상궤도에 올라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동창회장 선출 불신임 소동’으로 지난 1월 29일 전격적으로 총동창회장에 취임한 지 한달보름 만에 조직의 진용을 갖췄다.

수석부회장에 김현태(30회) 집행위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고문단은 박종찬(25회) 전임 총동창회장이 자동으

로 가입,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2021년 자문단(연회비 100만원)은 모두 23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2명이 늘었다. 지난해 운영위부회장 등 25회가 6명이나 대거 영입됐다. 여기에다 28회 4명이 신규로 참가했다. 올해 자문단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일반위부회장단(연회비 100만원)과 집행위부회장단(연회비 200만원)도 각기 4명, 3명이 늘었다. 일반위부회장단 31명 중 30회가 6명을 차지, 무게감을 더했다. 30회가 차기 총동창회장 배출 기수라는 차원에서 이들의 역할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는 45회부터 50회까지 ‘신진’ 5명이 합류, 한층 젊어진 부회장단 모양새를 갖췄다. 45회 권우일 조태성, 46회 김백권, 47회 정진, 50회 박종현 동문이다.

집행위부회장단은 30회부터 42회까

지 모두 20명이다. 지난해 막내기수였던 40회 우영환 동문에 이어 41회 전삼록, 42회 신봉준 동문이 가세했다.

총동창회장 동기생으로 엮는 운영위 부회장단(연회비 100만원)은 1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명이 축소됐지만, 예상 밖의 인원수라는 평가이다. ‘총동창회장 선출 불신임 소동’의 중심에 선 기수가 29회임을 감안하면 그렇다.

기수 동기회에는 55회가 신규로 가입, 동기회 층이 보다 두터워졌다. 55회 동기회장은 장지훈, 사무국장은 이육한 동문이다.

이밖에도 동창회보 편집위원회에 마병진(31회) 동문이 참여했다.

모교80년사 본격적인 집필작업 돌입

박종기(28회) 위원, 550여쪽 연대기 자료집 종합 완성

재경동창회에 공동편찬 최종 타진

총동창회 모교80년사 편찬위원회가 자체 자료수집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판단하고 3월 중순부터 집필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물론 동문사회를 비롯하여 외부로부터의 자료수집은 편집마감 시간까지 계속된다.

지금까지 놀라운 귀한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었으며, 보안 유지를 해오고 있다.

또한 편찬위원회 산하 편집위원회의 박종기(28회) 위원은 지난 3월 초 모교 80년사의 연대기를 취합, 수정보완하여 550여쪽에 달하는 자료집을 완성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자료집은 이번 80년사 집필의 기초자료로서 요긴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위원의 80년사 연대기 자료집으로 사기가 오른 편집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총동창회관 5층 모교80년사 편찬위원회 회의실에서 합동회의를 갖고 자문위원의 집필협조 부분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경남고의 시대별 발전사 총론을 7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집필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종찬(25회) 편찬위원장과 김형석(16회)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김기열(23회) 전섭태(25회) 이요섭(27회) 박종기(28회) 서강태(30회) 편집위원, 주기민(16회) 차동렬(24회) 양맹준(25회) 자문위원, 현응열 총동창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편집위원회는 이날 재경동창회의 8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공동편찬 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했다. 4월 15일 재경동창회 사무실에서 만남을 갖는다. 이에 앞서 총동창회는 지난 3월 10일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명의로 재경동창회에 모교80년사 편찬작업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 총동창회는 기본적으로 모교80년사가 재경동창회와의 공동 작업으로 1권의 책이 발간

되길 바란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재경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만약 재경측이 자료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1권 편찬’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총동창회의 단독 편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경동창회의 발전상 자료 제출도 요구한 상태이다.

한편 모교 80년사 연대기 자료집을 엮어낸 박 위원은 “학교의 역사기록이 너무 부실하다.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교내 역사 기록에 대한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 기록문화의 부재를 절감한다”면서 “자료 발굴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점점 역사에 대해 빠져드는 묘한 기분이다. 동문으로서 의무감으로 참가했는데 이젠 보람과 재미를 더 느낀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지난해를 몇 주간 부산일보사를 방문, 열음장 같은 지하실에서 먼지 쌓인 옛날 신문들을 하나하나 뒤적이며 자료수집에 몰두하기도 했다(심한 감기 몸살을 앓기도).

박 위원은 모교80년사 편찬 작업에 보다 집중하고, 시간절약을 위해 거주지를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경남고 정문 앞에 들어선 아파트로 이사까지 한다. 박 위원은 “내가 수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모교에 전해줄 작정”이라고 밝혔다.



모교80년사 연대기 자료집을 헌신적인 노력으로 완성한 박종기 편집위원.



모교80년사 편찬위원회 편집위원과 자문위원 합동회의가 지난 3월 18일 열렸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모교 80년사 자료 수집 공고

총동창회는 모교 8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박종찬 총동창회 고문)를 지난 8월 15일 출범시켰습니다. 2022년 4월 25일 발간을 목표로 모교 80년사 편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난관도 있습니다.

경남중·고 모교에 보관된 자료를 정리해 본 결과, 많은 기간에 걸쳐 자료 부실 혹은 부재가 드러났습니다. 자료가 빈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니다.

모교 80년사 편찬은 경남중·고의 역사책으로서 사상 처음 만드는 기념비적 과업입니다. 동문님들께서 개인 소장하고 계신 학창시절의 오랜 자료를 흔쾌히 보내주셔서 흩어진 역사를 연결하는데 도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복원작업이 진행 중인 경남고 덕형관(원형교사)에 조성될 ‘역사박물관(가칭)’에 전시될 것입니다.

- 1 자료의 종류 : 월보, 학보, 교무 행정서류, 사진, 전산자료, 교복, 모자, 단추, 명찰, 상장, 상패, 앨범 등등 학창시절과 연관된 모든 물품
- 2 자료를 보내실 때 기수와 성함은 물론 간단한 설명 쪽지(날짜, 내용) 포함
- 3 보내주신 자료는 ‘착불’로 함(우송료는 편찬위원회 부담)
- 4 보내주실 곳 • 우편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8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관 5층 모교 80년사 편찬위원회
• 이메일 : parkgyver2@naver.com
- 5 기간 : 2022년 2월까지

경남중고등학교 모교 8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박종찬

“사회로부터 입은 혜택, 다시 돌려주는 것”

‘다이아몬드’급 기부 김 총동창회장, 이타적 삶 실천 모교발전기금 모금 계기 기부문화 뿌리 내리게 해야

총동창회에 5억원 이상 기부 ‘다이아몬드’급 기부자가 탄생한다. 지난 3월 31일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이 모교 발전기금으로 연내까지 4억4,000만원을 기부키로 했다. 자신의 기존 기부잔액 6,900만원을 합하면서 총 5억원이 넘는다. 총동창회 기부문화에 새로운 ‘좌표’로 떠올랐다. 김 총동창회장은 몇 해 전 서울대 조선공학과에도 장학금으로 5억원을 기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고 있다.

김 총동창회장은 “고교와 대학을 고학으로 졸업하고, 조선소 경력 10년, 조선기자재 무역사무실 30년을 대과 없이 지내오면서 사회로부터 분에 넘치는 혜택을 받아왔다. 돈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족하다는 게 기본 철학이다. 이제 사회에 돌려드리기 시작할 때가 되어 모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 총동창회장의 말에서 이타적 삶의 길을 읽을 수 있다. 이번 모교 경남고 재학생들의 학력신장 방안 실현을 위한 모교발전기금 모금운동은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수행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총동창회관 구입 기금 모금운동으로 타올랐던 동문사회의 기부문화를 뿌리내리게 하자는 의미도 있다.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기부가 줄을 잇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총동창회는 이미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수시기부시스템’이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기명이든 익명이든 기부가 가능하다. 총동창회 사무국의 기부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사무국 051-253-7788).

총동창회는 기부문화를 선양하기 위해 기부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있다. 소위 등급 명칭 부여제다. 몇 차례 언급된 등급 명칭 부여제도를 다시 설명하면, 모두 9종으로 개인별 기부금 합계 500만원 이상 기부자에 수준별 명칭을 부여한다. 기부액수에 걸맞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명예의 뜻이 담겨 있다. 기부자 스스로는 큰 자부심과 기쁨을 충분히 느낄만하다. 10억원 이상 기부자는 ‘더블 다이아몬드’, 5억원 이상 ‘다이아몬드’, 3억원 이상 ‘루비’, 2억원 이상 ‘사파이어’, 1억원 이상 ‘에메랄드’, 5천



김대욱 총동창회장

만원 이상 ‘플래티늄’, 3천만원 이상 ‘골드’, 1천만원 이상 ‘실버’, 500만원 이상 ‘브론즈’ 등으로 명명했다.

물론 소액기부도 환영한다. 소액을 조금씩 쌓아갈 수 있다. 누적되어 500만원이 넘기 시작하면 등급 명칭을 부여 받는다. 총동창회에 기부금을 내는 행위는 모교와 동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특정한 몇몇 동문의 거액 기부는 칭송받을 일이지만, 소액기부라도 많은 동문이 참여한다는 것 역시 소중한 큰 의미를 지닌다. 그것이 경남중고 동문의 저력이자 발전의 원동력이다.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협찬 기여도 통계

협찬금은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통계에 넣습니다.

다이아몬드		5억원이상	0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루비		3억원이상	0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사파이어		2억원이상	0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에메랄드		1억원이상	5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11	오 완 수	1억원	
2	23	김 영 기	1억2300만원	
3	25	박 중 찬	1억4000만원	
4	30	최 우 철	1억700만원	
5	33	박 명 진	1억300만원	

플래티늄		5천만원이상	13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13	이 경 재	5100만원	
2	16	송 규 정	5400만원	
3	17	최 만 식	5000만원	
4	18	김 길 제	5200만원	
5	19	이 부 성	5000만원	
6	22	유 재 진	6400만원	
7	24	박 홍 규	5000만원	
8	25	김 진 철	6400만원	
9	26	박 상 호	5050만원	
10	29	김 대 욱	6900만원	
11	30	윤 성 덕	6350만원	
12	37	허 부 남	5400만원	
13	38	권 두 성	7200만원	

골드		3천만원이상	22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9	조동훈(미)	3056만원	
2	15	김 경 일	4000만원	
3	16	엄 중 원	3000만원	
4	19	이 용 흙	4150만원	
5	20	박 용 덕	3100만원	
6	21	손석보(미)	3064만원	
7	23	김 중 광	3100만원	
8	25	서 병 수	3000만원	
9	27	박 치 호	4000만원	
10	28	백 영 호	3200만원	
11	29	박 성 철	3500만원	
12	30	김 현 태	3250만원	
13	31	박 중 호	3350만원	
14	31	홍 성 수	3320만원	
15	33	김 법 영	4250만원	
16	35	장 인 화	3300만원	
17	36	박 진 용	3150만원	
18	38	정 재 형	3050만원	
19	39	박 근 태	3140만원	
20	40	우 영 환	3500만원	
21	44	탁 정 환	3400만원	
22	47	정 신	321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4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3	송 두 호	1000만원	
2	8	박 동 렬	1000만원	
3	10	조 양 제	1000만원	
4	12	남 기 용	1000만원	
5	15	손 부 흥	1500만원	
6	15	천 신 일	243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4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7	15	한 해 수	1000만원	
8	17	이 세 복	1000만원	
9	17	최 성 호	1000만원	
10	19	황 태 원	1000만원	
11	20	김 형 오	1000만원	
12	20	허 규 판	1000만원	
13	21	강 창 수	1700만원	
14	21	전 재 호	1000만원	
15	22	김 학 균	1000만원	
16	22	박 재 상	2000만원	
17	22	장 성 덕	1000만원	
18	22	장 성 복	1000만원	
19	22	허 범 도	1000만원	
20	28	노 영 현	1400만원	
21	30	정 경 목	1000만원	
22	33	이 순 환	1000만원	
23	33	최 웅 남	1300만원	400만원
24	34	이 진 호	125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1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8	김 봉 길	500만원	
2	17	김 동 수	500만원	
3	17	윤 성 욱	500만원	
4	17	조 증 언	500만원	
5	19	김 봉 호	600만원	
6	19	장 흥 의	600만원	
7	20	김 태 영	500만원	
8	20	박 병 철	500만원	
9	23	이 상 수	500만원	
10	25	김 익 수	700만원	

2021년 3월 26일 작성

브론즈		5백만원이상	41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1	25	박 세 철	530만원	
12	25	손 기 천	550만원	
13	25	송 경 규	550만원	
14	25	이 명 철	710만원	
15	26	김 상 현	500만원	
16	26	박 재 욱	500만원	
17	26	박 효 대	500만원	
18	26	하 원 규	500만원	
19	27	김 태 우	550만원	
20	27	문 두 찬	600만원	
21	28	구 영 소	500만원	
22	28	이 원 철	900만원	
23	28	최 강 호	500만원	
24	29	이 석 조	600만원	
25	30	김 해 곤	700만원	
26	30	윤 인 태	610만원	
27	30	이 명 건	530만원	
28	30	이 학 수	700만원	
29	30	허정택(미)	615만원	
30	31	남 기 태	700만원	
31	31	류 명 석	660만원	
32	31	오 민 일	600만원	
33	31	이 병 태	600만원	
34	31	정 철 수	500만원	
35	32	이 종 휘	710만원	
36	34	박 철 웅	500만원	
37	34	이 재 완	550만원	
38	39	백 기 현	810만원	
39	41	이 양 걸	800만원	
40	44	안 병 규	600만원	
41	64	표 중 빈	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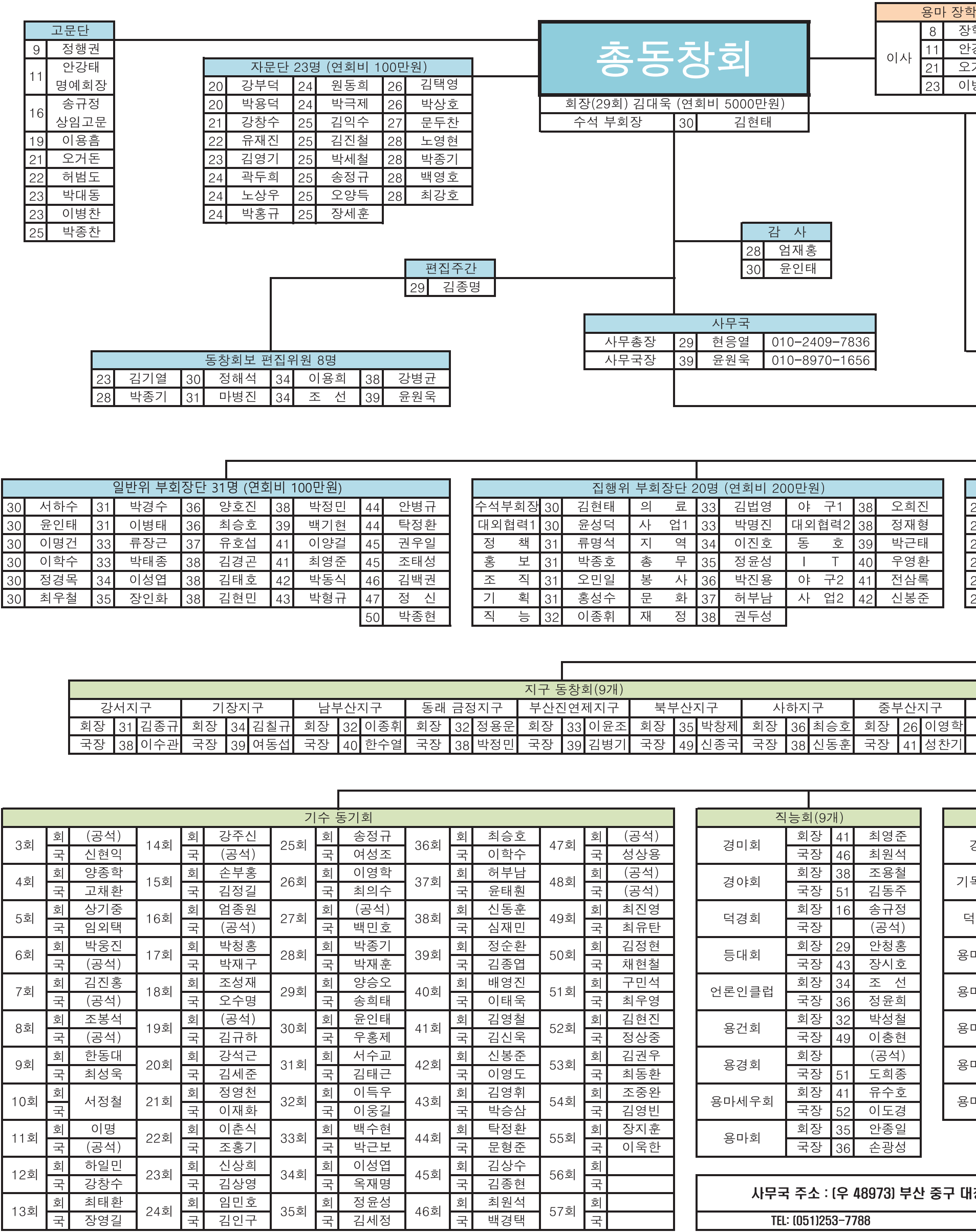
42회 동기회, 동기자녀 장학금 전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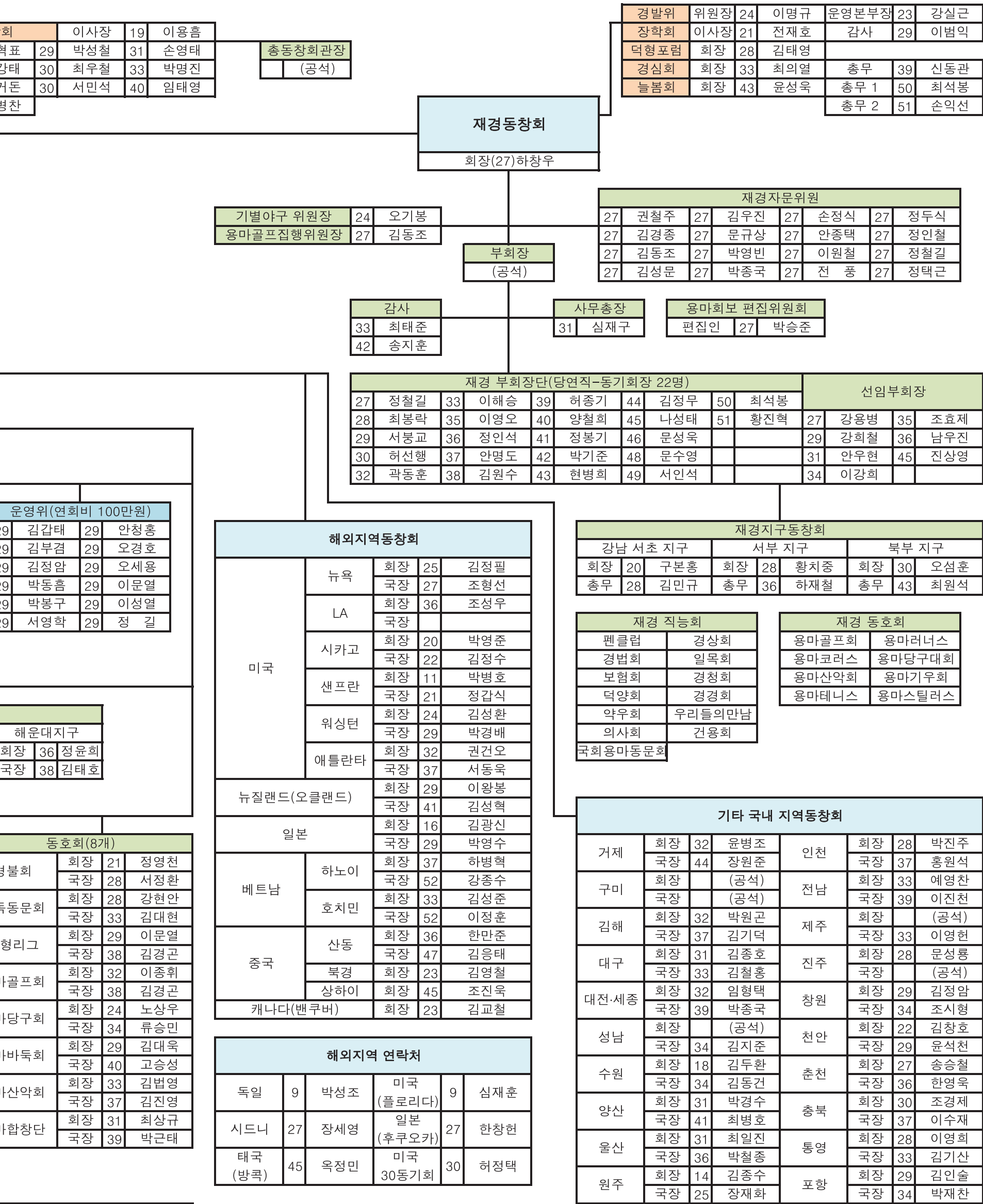


고장석 동문 딸 고은 양 수혜 42회 동기회가 주최하는 제3회 동기자녀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총동창회관 6층 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장학금 수혜자는 고장석 동기의 딸 고은 양(다대고 1년 재학)이다. 장학금은 100만원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신봉준 동기회장, 이영도 사무국장, 안정일 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고은 양은 "교대에 진학하여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며, 아버지들의

사랑으로 그 꿈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 같다"며 장학금 수혜의 고마움을 표했다. 신 동기회장은 이 자리서 고은 양에게 동기회 장학금의 취지를 설명하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회관 1층 우미옥 식당에서 식사 중 때마침 이곳을 방문한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이 식사비용 전액을 찬조했다. ‘동창회는 사랑으로...’.

2021 총동창회 조직표





재

경

부

회

장

단

(당

연

직

-

동

기

회

장

22

명

)

27

정

철

길

33

이

해

승

39

허

종

기

44

김

정

무

50

최

석

봉

28

최

봉

락

35

이

영

오

40

양

철

희

45

나

성

태

51

황

진

혁

29

서

봉

교

36

정

인

석

41

정

봉

기

46

문

성

욱

29

강

희

철

36

남

우

진

30

허

선

행

37

안

명

도

42

박

기

준

48

문

수

영

31

안

우

현

45

진

상

영

32

곽

동

훈

38

김

원

수

43

현

병

희

49

서

인

석

34

이

강

희

34

이

강

희

34

이

강

희

운

영

위

(연

회

비

100

만

원)

9

김

갑

태

29

안

청

홍

9

김

부

겸

29

오

경

호

9

김

정

암

29

오

세

웅

9

박

동

흠

29

이

문

열

9

박

봉

구

29

이

성

열

9

서

영

학

29

정

길

해

운

대

지

구

회

장

36

정

운

희

국

장

38

김

태

호

동

호

회

(8

개)

불

회

회

장

21

정

영

천

국

장

28

서

정

환

동

문

회

회

장

28

강

현

안

국

장

33

김

대

현

형

리

그

회

장

29

이

문

열

국

장

38

김

경

곤

골

프

회

회

장

32

이

종

휘

국

장

38

김

경

곤

당

구

회

회

장

24

노

상

우

국

장

34

류

승

민

바

독

회

회

장

29

김

대

욱

국

장

40

고

승

성

산

악

회

회

장

33

김

법

영

국

장

37

김

진

영

합

창

단

회

장

31

최

상

규

국

장

39

박

근

태

해

외

지

역

동

창

회

미

국

뉴

욕

회

장

25

김

정

필

국

장

27

조

형

선

LA

회

장

36

조

성

우

국

장

시

카

고

회

장

20

박

영

준

국

장

22

김

정

수

샌

프

란

회

장

11

박

병

호

국

장

21

정

갑

식

워

싱

턴

회

장

24

김

성

환

국

장

29

박

경

배

애

틀

란

타

회

장

32

권

건

오

국

장

37

서

동

욱

뉴

질

랜

드

(오

클

랜

드)

회

장

29

이

왕

봉

국

장

41

김

성

혁

일

본

회

장

16

김

광

신

국

장

29

박

영

수

베

트

남

하

노

이

회

장

37

하

병

혁

국

장

52

강

종

수

호

치

민

회

장

33

김

성

준

국

장

52

이

정

훈

중

국

산

동

회

장

36

한

만

준

국

장

47

김

응

태

북

경

회

장

23

김

영

철

상

하

이

회

장

45

조

진

욱

캐

나

다

(밴

쿠

버)

회

장

23

김

교

철

해

외

지

역

연

락

처

독

일

9

박

성

조

미

국

(플

로

리

다)

9

심

재

훈

시

드

니

27

장

세

영

일

본

(후

쿠

오

카)

27

한

창

현

태

국

(방

콕)

45

옥

정

민

미

국

30

동

기

회

30

허

정

택

재

경

지

구

동

창

회

강

남

서

초

지

구

회

장

20

구

본

홍

총

무

28

김

민

규

서

부

지

구

회

장

28

황

치

중

총

무

36

하

재

철

북

부

지

구

회

장

30

오

섬

훈

총

무

43

최

원

석

재

경

직

능

회

펜

클

럽

경

상

회

경

법

회

일

목

회

보

험

회

경

청

회

덕

양

회

경

경

회

약

우

회

우

리

들

의

만

남

의

사

회

건

용

회

국

회

용

마

동

문

회

재

경

동

호

회

용

마

골

프

회

용

마

러

너

스

용

마

코

러

스

용

마

당

구

대

회

용

마

산

악

회

용

마

기

우

회

용

마

테

니

스

용

마

스

틸

러

스

기

타

국

내

지

역

동

창

회

거

제

회

장

32

윤

병

조

국

장

44

장

원

준

인

천

회

장

28

박

진

주

국

장

37

홍

원

석

구

미

회

장

(공

석)

국

장

(공

석)

전

남

회

장

33

예

영

찬

국

장

39

이

진

천

김

해

회

장

32

박

원

곤

국

장

37

김

기

덕

제

주

회

장

(공

석)

국

장

33

이

영

현

대

구

회

장

31

김

종

호

국

장

33

김

철

홍

진

주

회

장

28

문

성

룡

국

장

(공

석)

대

전

·

세

종

회

장

32

임

형

택

국

장

39

박

종

국

창

원

회

장

29

김

정

암

국

장

34

조

시

형

성

남

회

장

(공

석)

국

장

34

김

지

준

천

안

회

장

22

김

창

호

국

장

29

윤

석

천

수

원

회

장

18

김

두

환

국

장

34

김

동

건

춘

천

회

장

27

송

승

철

국

장

36

한

영

욱

양

산

회

장

31

박

경

수

국

장

41

최

병

호

충

북

회

장

30

조

경

제

국

장

37

이

수

재

울

산

회

장

31

최

일

진

국

장

36

박

철

종

통

영

회

장

28

이

영

희

국

장

33

김

기

산

원

주

회

장

14

김

종

수

국

장

25

장

재

화

포

항

회

장

29

김

인

솔

국

장

34

박

재

찬

정

로

18

(부

평

동

4

가)

5

층

FAX: (051)255-7787

2021 총동창회 임원진

총동창회		 회장 김대욱(29회)	 감사 엄재홍(28회)	 감사 윤인태(30회)	 고문 정행권(9회)	 고문/명예회장 안강태(11회)	 상임고문 송규정(16회)	 고문 이용희(19회)	 고문 허범도(22회)
 고문 박대동(23회)	 고문 이병찬(23회)	 고문 박중찬(25회)	 자문위원 강부덕(20회)	 자문위원 박용덕(20회)	 자문위원 강창수(21회)	 자문위원 유재진(22회)	 자문위원 김영기(23회)	 자문위원 곽두희(24회)	 자문위원 노상우(24회)
 자문위원 박계애(24회)	 자문위원 박홍규(24회)	 자문위원 원동희(24회)	 자문위원 김익수(25회)	 자문위원 김진철(25회)	 자문위원 박세철(25회)	 자문위원 송규정(25회)	 자문위원 오양득(25회)	 자문위원 장세훈(25회)	 자문위원 김택영(26회)
 자문위원 박상호(26회)	 자문위원 문두찬(27회)	 자문위원 노영현(28회)	 자문위원 박종기(28회)	 자문위원 백영호(28회)	 자문위원 최강호(28회)	 집행위 부회장 김현태(30회)	 집행위 부회장 윤성덕(30회)	 집행위 부회장 류명석(31회)	 집행위 부회장 박종호(31회)
 집행위 부회장 오민일(31회)	 집행위 부회장 홍성수(31회)	 집행위 부회장 이중희(32회)	 집행위 부회장 김병희(33회)	 집행위 부회장 박명진(33회)	 집행위 부회장 이진호(34회)	 집행위 부회장 정윤성(35회)	 집행위 부회장 박진용(36회)	 집행위 부회장 허부남(37회)	 집행위 부회장 권두성(38회)
 집행위 부회장 오기진(38회)	 집행위 부회장 정재형(38회)	 집행위 부회장 박근태(39회)	 집행위 부회장 우영환(40회)	 집행위 부회장 전삼록(41회)	 집행위 부회장 신봉준(42회)	 운영위원 김갑태(29회)	 운영위원 김부겸(29회)	 운영위원 김정암(29회)	 운영위원 박동희(29회)
 운영위원 박봉구(29회)	 운영위원 서영학(29회)	 운영위원 안정홍(29회)	 운영위원 오경환(29회)	 운영위원 오세용(29회)	 운영위원 이문열(29회)	 운영위원 이성열(29회)	 운영위원 정길(29회)	 부회장 서하수(30회)	 부회장 윤인태(30회)
 부회장 이명건(30회)	 부회장 정경목(30회)	 부회장 최우철(30회)	 부회장 박경수(31회)	 부회장 이병태(31회)	 부회장 류장근(33회)	 부회장 박태중(33회)	 부회장 이성엽(34회)	 부회장 장인화(35회)	 부회장 양준진(36회)
 부회장 최승호(36회)	 부회장 유호섭(37회)	 부회장 김경군(38회)	 부회장 김태호(38회)	 부회장 김현민(38회)	 부회장 박정민(38회)	 부회장 백기현(39회)	 부회장 이양걸(41회)	 부회장 최영준(41회)	 부회장 박동식(42회)

2021 총동창회 임원진

 부회장 박형규(43회)	 부회장 안병규(44회)	 부회장 탁정환(44회)	 부회장 권우일(45회)	 부회장 조태성(45회)	 부회장 김백권(46회)	 부회장 정 신(47회)	 부회장 박종현(50회)	 편집주간 김중명(29회)	 편집위원 김기열(23회)	
 편집위원 박종기(28회)	 편집위원 정해석(30회)	 편집위원 마병진(31회)	 편집위원 이용희(34회)	 편집위원 조 선(34회)	 편집위원 강병권(38회)	 편집위원 윤원욱(39회)	지구동창회		 강서지구 회장 김중규(31회)	 강서지구 사무국장 이수관(38회)
 기장지구 회장 김철규(34회)	 기장지구 사무국장 여동섭(39회)	 남부산지구 회장 이종희(32회)	 남부산지구 사무국장 한수열(40회)	 동래-금정지구 회장 정용운(32회)	 동래-금정지구 사무국장 박정민(38회)	 부산진-연제지구 회장 이윤조(33회)	 부산진-연제지구 사무국장 김병기(39회)	 북부산지구 회장 박창제(35회)	 북부산지구 사무국장 신종국(49회)	
 사하지구 회장 최승호(36회)	 사하지구 사무국장 신동훈(38회)	 중부산지구 회장 이영학(26회)	 중부산지구 사무국장 성찬기(41회)	 해운대지구 회장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 사무국장 김태호(38회)	지역동창회		 김해지역 사무국장 김기덕(37회)	 대전-세종지역 사무국장 박종국(39회)	 양산지역 회장 박경수(31회)
 양산지역 사무국장 최병호(41회)	 울산지역 사무국장 박철중(36회)	 재경지역 회장 하창우(27회)	 재경지역 사무국장 심재구(31회)	 창원지역 회장 김정암(29회)	 창원지역 사무국장 조시형(34회)	 통영지역 사무국장 김기산(33회)	 포항지역 회장 김인술(29회)	 포항지역 사무국장 박재찬(34회)	해외지역 동창회	
 미국뉴욕 회장 김경필(25회)	 미국뉴욕 사무국장 조형선(27회)	 미국LA 회장 조성우(36회)	 미국애틀랜타 사무국장 서동욱(37회)	 일본 회장 김광신(16회)	 일본 사무국장 박영수(29회)	 베트남하노이 회장 하병혁(37회)	 베트남하노이 사무국장 강중수(52회)	 베트남호찌민 회장 김성준(33회)	 베트남호찌민 사무국장 이정훈(52회)	
 중국산둥 회장 한만준(36회)	 중국산둥 사무국장 김응태(47회)	 중국상하이 회장 조진욱(45회)	직능회 동호회		 경미회 회장 최영준(41회)	 경야회 회장 조용철(38회)	 경야회 사무국장 김동주(51회)	 덕경회 회장 송규정(16회)	 등대회 회장 안정홍(29회)	 등대회 사무국장 장시호(43회)
 언론인클럽 회장 조 선(34회)	 언론인클럽 사무국장 정윤희(36회)	 용건회 사무국장 이충현(49회)	 용마세우회 회장 유수호(41회)	 용마세우회 사무국장 이도경(52회)	 용마회 회장 안종일(35회)	 용마회 사무국장 손광성(36회)	 경북회 회장 정영천(21회)	 경북회 사무국장 서정환(28회)	 기독교문화회 회장 강현안(28회)	
 기독교문화회 사무국장 김대현(33회)	 덕형리회 회장 이문열(29회)	 덕형리회 사무국장 김경곤(38회)	 용마골프회 회장 이종휘(32회)	 용마골프회 사무국장 김경곤(38회)	 용마당구회 회장 노상우(24회)	 용마당구회 사무국장 류승민(34회)	 용마바둑회 회장 김대욱(29회)	 용마바둑회 사무국장 고승성(40회)	<16면에 계속>	

2021 총동창회 임원진

 용마산약회 회장 김범엽(33회)	 용마산약회 사무국장 김진영(37회)	 용마합창단 단장 최상규(31회)	 용마합창단 사무국장 박근태(39회)	동기회장		 양중학(4회)	 상기중(5회)	 한동대(9회)	 이 명(11회)	 최태환(13회)
 손부홍(15회)	 엄중원(16회)	 조성재(18회)	 정영천(21회)	 이훈식(22회)	 임민호(24회)	 송정규(25회)	 이영학(26회)	 박중기(28회)	 양승오(29회)	
 윤인태(30회)	 서수교(31회)	 이득우(32회)	 백수현(33회)	 이성엽(34회)	 정운성(35회)	 최승호(36회)	 허부남(37회)	 신동훈(38회)	 정순환(39회)	
 배영진(40회)	 김영철(41회)	 신봉준(42회)	 김영휘(43회)	 탁정환(44회)	 김상수(45회)	 최진영(49회)	 김정현(50회)	 구민석(51회)	 김현진(52회)	
 김권우(53회)	 조중완(54회)	동기국장		 신현익(3회)	 강창수(12회)	 장영길(13회)	 김정길(15회)	 오수명(18회)	 김규하(19회)	 김세준(20회)
 김상영(23회)	 김인구(24회)	 여성조(25회)	 최의수(26회)	 백민호(27회)	 우홍제(30회)	 김태근(31회)	 박근보(33회)	 옥재명(34회)	 김세중(35회)	
 이학수(36회)	 윤태현(37회)	 김중엽(39회)	 이태욱(40회)	 김신욱(41회)	 김중현(45회)	 성상웅(47회)	 최유탄(49회)	 최우영(51회)	 정상중(52회)	
 최동환(53회)	 김영빈(54회)	사무국		 사무총장 현용열(29회)	 사무국장 윤원욱(39회)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임원진 일동 -				



동창회보 축쇄판 4집 발간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역사 읽을거리를 판매합니다.
2003년의 제3집 이후 17년 만에 무려 1200페이지의 축쇄판 제4집(회보 301호부터 400호까지 수록)을 발간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51-253-7788 FAX : 051-255-7787 E-mail : yongma2007@hanmail.net



주민등록번호 같은 판권 유무에 따라 책값 차이



양수성(46회)의
古서적을 찾아서 ④

책방, 영화배경으로 자주 등장
실제로 사랑의 연결 장소 애용

이번에도 책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태어나면서 가지는 고유번호가 하나 있지요.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정보를 담은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증은 이 사람의 원적이 어디이며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주지요. 책에도 그런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바로 판권이라고 일컫는 책의 제일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지요.(외국에서 또는 가끔 우리나라 책에도 앞부분에 판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책이 언제 만들어지고, 어디서 태어났으며, 발행 당시의 가격은 얼마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책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책이 다 그렇지만 책의 판권은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간행된 희귀한 문학책의 경우 그 책의 초판 여부도 알려줍니다. 또한 그 책이 나왔을 당시의 생활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은 일반적으로 책이 얼마인데 그때의 가격으로 물가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발행된 곳의 위치를 추적하여 어떤 공간에 출판을 하는 곳이 있었는지, 또는 향토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판권입니다.

옛 책의 경우 판권이 있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가격차가 현저하게 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유명한 작가의 1940년대 시집의 예를 들어보면 판권이 정상적으로 있는 경우에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판권이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절반 가격에 미치지 않습니다. 책이 가진 표지의 유무보다는 때로는 판권의 유무에 따라서 책 가격이 결정될 정도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전에 어떤 손님이 해방 이후 을유문화사에서 간행된 정지용 선생의 '지용시선'을 꺼내 와서는 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싼 가격에 매입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입 당시에는 분명히

판권이 있었기에 의아해 했지만 없는 이유로 아주 싸게 팔았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그 손님이 타게하여 그 손님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가 소장하고 있는 고서를 팔기 위하여 저에게 매입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며칠 뒤 그 집을 방문, 책을 살펴보니, 그 '지용시선'의 판권이 찢어진 것을 다시 붙인 흔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그냥 생각만으로 흘려보낸 적이 있었지요. 결국 소장하고 있던 책을 모두 매입은 해왔지만 웬지 씁쓸하면서도 다시 찾아왔다는 마음에 흡족함이 함께 했지요.

하여튼 이렇게 판권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마치 판권이 없는 책은 어떤 사람의 과거를 잃은 것과 동일하니까요. 자, 혹시 보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 친구의 판권을 한번 봐보시길 권합니다. 생각보다 재미가 있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천국의 책방' '이터널 선샤인' '국화꽃 향기' '내부자들'... 혹시 이 영화들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 모든 영화에는 책방이 등장합니다. 책방이 주된 소재는 아니지만 책방이 주는 영화의 효과 등에 적절히 이용하기 위하여 배경에 자주 등장장을 합니다. 뭐, 직업이 책방 주인이라 고서점을 운영하면서 일부로 책방이 나오는 영화를 찾아보곤 했지요.

제가 서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책방주인이 주인공으로 나온다길래 약간의 궁금증을 안고 영화관으로 갔습니다. '노팅힐'이라는 영화입니다. 휴 그랜트와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로 약간은 신데렐라 신드롬을 섞어서 만든 듯한 영화로(여기서는 남자가 신데렐라입니다) 사실 진부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여러 번 보았는데, 그 이유에는 몇 가지 이야기에 대하여 격하게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영화상에 나오는 요셋말



▲책방이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장소라고 말하는 양수성 동문의 고서점 내부.



◀정지용 시인의 시집 '지용시선' 표지.

로 '진상'이라고 불리는 손님들이 몇 등장장을 하는데, 책을 훑쳐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손님, 없는 분야의 책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부분에서는 몇몇 손님들의 얼굴이 오버랩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손님들이 가끔 저의 고서점에 등장장을 합니다.

책을 살짝 훑쳐가는 손님은 어찌 보면 양반이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손님들이 있는데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나열해 볼까요?

책을 칼로 오려가는 손님, 여기 있는 책들 다 쓰레킨데 왜 이리 비싸게 파느냐고 따지는 손님, 책을 모른 척 찢은 뒤 다음에 와서 찢어졌다고 말하고 싸게 사가려고 하는 손님, 외상을 하고 한참 안 오다가 다시 와서는 외상한 적 없다고 하는 손님 등... 나열하려고 하면 끝이 없을 듯 하지만 이런 손님들 덕분에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책방을 하면서 그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재미로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영화상에서 책방 주인 역으로 나오는 휴 그랜트가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비용을 아껴도 400파운드가 적자군.' 절대 공감할 수가 없지요. 사실 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풍족하게(?) 살기가 책방을 해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세 번째로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이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요. 삽입곡인 빌 워더스의 'Ain't no sunshine'

은 가본 적 없는 영국의 노팅 힐을 상상하게끔 해주는 곡이지요. 무엇보다도 주제가로도 쓰이고, 엔딩에 흘러나오는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는 여전히 우울할 때 제가 자주 듣는 음악 다섯곡 중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깐요. 혹시 들어 보시면, '아, 이 곡~'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좋아했고 좋아하는 이유는 책방에 찾아오는 손님과 행복한 사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영화상에서 유명한 여배우로 분하고 있는 줄리아 로버츠는 휴 그랜트가 운영하는 여행전문 책방에 들리는데 이 만남을 시작으로 그들의 로맨스는 시작이 됩니다. 결국 책방이 그들의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제일 큰 역할을 하게 되지요. 비록 저는 아내를 손님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고서점을 하면서 연관된 일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돌려서 이야기 하면, 결국 영화처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뭐, 제가 휴 그랜트처럼 잘 나지도 않고, 아내는 여배우는 아니지만요(ㄹ).

처음 개봉되어 본 지 꽤 오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감으로 인하여 며칠 전에도 이 영화를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공감들은 모든 책방 주인들이 생각하는 게 아닐는지... 그리고 서점을 꿈꾸는 분들에게 하나의 부록처럼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선후배 동문님들, 혹시 서점을 꿈꾸십니까? 그럼 로맨스도 따라올지 모릅니다(^^).



강서지구동창회 김종규 회장 일행이 손부홍 동문 직장을 탐방했다.

“코로나19 돌파” 주목받는 동문탐방 기획

강서지구동창회 13탄까지 진행, 우호증진 큰 반향

○...강서지구동창회가 올들어 벌이고 있는 동문탐방 시리즈 기획이 3월 말 기준 13탄을 기록하면서 동문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기획은 소수인원의 동문간 대면을 통해 우호증진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코로나19 국면의 돌파구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강서지구동창회 동문탐방시리즈는 지난 1월 28일 김성규(54회) 동문 가게 ‘손정순 찜닭’을 1탄으로 출발하여 3월 16일 현재 우재준(53회·기획홍보2차장) 디자이너 가구 ‘에이앤드’까지 13탄을 기록 중이다.

행사는 김종규(31회) 강서지구동창회장과 이수관(38회)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4~5명의 동문이 동문기업을 찾아가는 형식이다. 탐방대상 동문으로부터 창업 이야기, 현재의 경영상황, 미래 전망 등 업무 정보를 듣고 공유하며, 격려와 함께 경우에 따라 기(氣)를 불어넣어주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탐방 동문기업 소재지도 강서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부산권역을 넘을 정도로 광폭적이다. 진해 용원, 사상구 덕포동,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인근까지 원정 탐방을 가기도 한다.

13탄까지의 동문 기업을 소개한다. ① 김성규(54회) ‘손정순 찜닭’ ② 윤호재(49

회) 세탁편의점 ‘크린토피아’ 명지점 ③ 조형래(49회·변호사) ‘법률사무소 소통’ ④ 정재형(38회·부회장) ‘삼성철강’ ⑤ 이수관(38회·사무국장) ‘까치부동산’ ⑥ 백영호(28회·고문) ‘큰보람약국’ ⑦ 손부홍(15회·고문) ‘사상제일요양병원’ ⑧ 류태용(54회) ‘그집 갈비탕’ 진해용원점 ⑨ 노기태(20회·고문) ‘강서구청장 집무실’ ⑩ 김택영(26회·고문) ‘한겨레치과’ ⑪ 유승환(58회) ‘과일특공대’ 국제신도시사단 ⑫ 김재성(35회) 해성공업 ⑬ 우재준(53회·기획홍보2차장) 디자이너가구 ‘에이앤드’.

5회 트로이카 건재 소식 전해



강서지구동창회 5회 진도영, 상기중, 임성업 동문과 사무국장 이수관(38회) 동문(왼쪽부터).

○...강서지구동창회 이수관(38회) 사무국장이 지난 2월 16일(화) 낮 점심식사 후 조우한 강서지구 최선참기수인 ‘5회 트로이카’ 상기중, 진도영, 임성업 동문의 근황을 알려졌다. 일행은 진 동문의 옛 제자였다는 여성분이 운영하는 찻집에서 간단한 티타임을 가졌다.

울산용마야구단, 16년째 활약 중

단장 박희찬(35회), 감독 이현(44회) 동문

○...울산지역에서 울산용마야구단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단 16년째를 맞은 용마야구단에는 경남중·고 출신 회원 19명이 등록되어 있다. 단장은 박희찬(35회) 동문이, 감독은 이현(44회) 동문이 맡고 있다. 용마야구단은 울산남구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 일각



야구경기 중인 울산용마야구단 모습.

고래부 리그에 출전 중이다. 지난 3월 7일 열린 리그 첫 게임에서 울산몬스터즈에 패배(0대9)했지만, 3월 14일 두 번째 게임 울산하데스 전에서는 19대10으로 대승했다.

목요 태화강변 걷기 시행

○...울산지역동창회는 지난해 진행했던 수요산행을 올해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목요 태화강변 걷기’로 변경해 시행한다. 지난 3월 25일 오후 6시 30분 십리대밭교 매점 앞에서 출발하는 첫 행사를 가졌다.

김해지역동창회 ‘핑퐁 우정’ 쌓기

친목도모 탁구대회 개최

○...김해지역동창회 친목도모 탁구대회가 지난 3월 21일(토) 오후 김해내동탁구장에서 열렸다. 차의수(29회) 황성철(31회) 김규선(36회) 김기덕(37회·사무국장) 조영호(44회) 김성준(44회) 이상현(45회) 김창겸(김성준 동문 아들) 부산여고동문 1명(조영호 대학동문회) 등 모두 9명이 참가, 열전을 펼쳤다. 단식과 복식을 이어가면서 2시간여 동안 게임을 진행한 결과 김규선-김기덕 조가 노익장을 과시하며 우승했다.

등산으로 다져진 속칭 김해지역 산신령 차의수 전 회장, 100kg이 넘는 거구로 땀 2kg을 빼 다이어트한 김성준 동문, 야구수육을 곁들인 뒤편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다 뱉어내며 열띤 분위기를 조성한 조영호 이상현 동문, 읍서버로 참석해 자리를 빛낸 조영호 동문의 대학 부산여고 동기, 김성준 동문의 셋째 아들 등 모두가 이날의 주연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매달 한 번씩 탁구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 자리서 참석자들은 후배동문들을 찾아서 50여년 전통의 김해동문회를 활성화 하자고 뜻을 모았다.

훈훈한 미담 2가지

○...김해지역동창회에 동문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잔잔한 미담 2가지가 나왔

다. 첫째 이야기. 3월 18일 김기덕(37회) 사무국장이 김성준(44회) 동문이 밤새워 만든 조직도를 밴드에 올리며 회원 연회비 납부를 호소했다. 나흘 후 연회비가 없는 고문인 차의수(29회) 전 회장이 자칭 ‘비공식 부회장’이라면서 3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했다. ‘참석과 회비는 날아가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며 조그만 성의라 했다. 이에 김 사무국장은 밴드에 ‘고문님은 언제나 마을 뒷동산처럼 김해지역동문회를 보듬어 주십니다. 뒷동산이 있는 한 겨울의 북풍 한파를 모를 것이며, 봄에 품어 주는 선한 향기는 천리를 덮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들은 선배님들의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의 뒷길을 따를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둘째 이야기. 김영우(19회) 동문의 농장 내 호숫가에 후배가 설치한 데크에 다른 후배가 제작한 테이블이 놓여졌다. 데크는 김기덕(37회) 사무국장이 발주 받아 설치했다. 데크에 놓을 테이블 2개가 김규선(36회) 수석부회장에 의뢰되었다. (주)광림목재 대표로 ‘나무박사’로 통하는 김 수석부회장은 톱과 드릴로 직접 명품테이블 제작을 완료했다. 김해동문회 발전에 도움을 많이 준 김 동문에게 테이블은 아름다운 ‘보은의 선물’로 전달되었다.



김해지역동창회 탁구대회 참가자들. 왼쪽부터 이상현(45회) 김성준(44회) 황성철(31회) 차의수(29회) 김기덕(37회) 김규선(36회) 조영호(44회·중앙) 동문.



애틀랜타지역 꾸준히 모임 이어가

애틀랜타지역동문회가 모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27일 Tucker, GA에 있는 해리티지(Heritage) 골프클럽에서 권건오, 정종우(이상 32회), 서동욱(37회), 김대형(44회) 동문 4명이 오랜만에 모여 운동을 했다. 운동 후 둘루스 한인타운 서울 갈비에서 안근식(29회), 최호성(34회), 이정연(44회) 동문과 합류하여 함

께 저녁식사(사진)를 하며 동문간 우정을 나누었다.

지난 2월 21일에는 안근식 권건오 정종우 서동욱 동문 4명이 둘루스 소재 미술관에서 번개모임을 했다. 이날 모임은 애틀랜타 근처 한국회사 주재원으로 온 지 몇 년이 된 정 동문이 최근에야 동문회 존재 사실을 알고 연락이 와서 갖게 된 것이다.

경미회 회장 이·취임식…‘100% 참석’ 결속 과시

최영준 신임 회장 “모교 미래지향적 발전 위해 역할 해야”

신임회원 16명…분과위 5개로

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경미회) 2021년 정기총회 겸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3월 22일 오후 충동창회관 6층 강당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2월 개최가 늦춰진 것이다. 이날 경미회 회원 거의가 참석, 결속력을 과시했다. 우영환(40회) 전임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 부족한 점은 새 집행부가 잘 메워달라”면서 지지해준 회원 모두에 감사의 인사와 함께 새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경미회 명예회장)은 “경미회 탄생은 최대 보람 중 하나이다. 특히 우영환 회장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경미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최영준 신임 회장 역시 대단한 열의와 봉사정신을 보여주고 있어 동문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격려하고 “앞으



최영준(오른쪽) 신임 경미회 회장이 우영환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로도 힘닿는 데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경미회 후배기수의 각별한 동창회 애정을 느낀다. 뜨거워지는 동창애

를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킬 방안을 고민했다. 모교 재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많이 진학할 수 있게 하는 게 최대의 동문 사랑일 것이다. 모교 재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방

안이 필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모금 캠페인을 고려 중이다. 형편 되는 대로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최영준(41회)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경미회 회원은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선배는 선배다움으로, 후배는 후배다움이란 도의를 가지고 서로 간 소통을 통해 함께하는 경미회를 만들어 가자. 경남중고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최 신임 회장을 비롯한 21명의 임원진이 소개됐다. 이날 신임회원 16명이 입회했다. 이 자리서 박 고문과 전임 집행부 우영환 전 회장, 손창오 전 사무국장, 김정현 전 재무국장 등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열렸다.

경미회는 기존의 행사일정에서 명예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오는 7월 10일 개최·박 고문 후원)와 경미회 월례 당구모임(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신규행사로 추가키로 했다. 또 경미회는 회원 증가로 문화체육분과위원회를 신설, 모두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경미회 수요일 월례회 당구모임 첫 행사 수상자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미회 수요일 월례회 당구모임 개최

경미회 수요일 월례회 당구모임 첫 행사가 지난 3월 31일 오후 충동창회관 내 KN당구장에서 열렸다. 경미회는 회원 친목도모와 총동창회관 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당구 정규 모임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갖는다. 이날 대회에서 우승 신현식(51회), 준우승 전삼록(41회), 3위 권우일(45회), 4위 최영준(41회) 동문이 차

지했다.

이날 행사에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이 우승 상금 30만원을, 박종찬(25회) 고문 20만원, 최영준 경미회 회장 20만원을 찬조했다. 우승자인 신 동문은 상금 30만원을 친목교류분과위원회에 10만, 51회 동기회에 10만, 2회 대회 우승상금 10만원을 각각 찬조했다.

용마골프회 신임 회장 이종휘(32회) 동문

회장 이·취임식 가져

용마골프회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3월 15일 오후 경남 덕계 금천중식당에서 열렸다. 용마골프회는 이날 낮 3월 정기라운드를 부산CC에서 가졌다.

회장 이·취임식 자리에서 김대욱(29회) 초대회장은 이종휘(32회) 수석부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지명, 회원 만장일치 동의를 받았다. 김 전임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종휘 신임회장이 맡아 모임이 불같이 활성화돼 참여도가 높아졌다. 골퍼는 우리사회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모교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하다. 재경동창회 지원도 미미하다. 새로운 지원프로젝트를 모색 중에 있다. 용마골프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신임회장은 “어깨가 무겁다. 짧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단

합하여 멋진 모임을 만들어 총동창회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면서 골프회 운영 방안을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월례회는 매번 10조 이상 진행, 매월 3번째 월요일 2부(5월까지는 부산CC) ▲부회장 체제 변경. 부회장은 각 기수별 대표 1명씩 선임(일반회원 회비 + 10만원) ▲2021년 고교대항전 반드시 출전. 선수선발전 개최. 고교대항전 선수 선발전위원장에 이성훈(32회) 동문 등의 내용을 밝혔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은 격려사에서 최근의 상황과 관련, “정의감이 남아 있다. ‘강철 멘탈’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동문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용마골프회 회원들의 역할 비중이 커지고 있다. 골프동호회가 활성화 되면 동문회가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은



용마골프회 이종휘 신임 회장(왼쪽)이 김대욱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건배사에서 “‘동창회는 후배들이 이끌 어간다’는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말씀이 틀림없었다”면서 “함께, 나가자!”를 외쳤다.

총동창회에서 용마골프회기를 제작(25만원)해 전달했다.

◇용마골프회 새 집행부 명단=△신임 회장 이종휘(32회) △사무국장 김경곤(38회) △사무차장 강훈(41회) △재무국장 권우일(45회) △재무차장 김민철(52회) △경기운영이사 배봉건(44회·연임) △고교대항전 선수 선발전위원장 이성훈(32회).

◇공로패 수상자 명단=△초대 전임회장 공로패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용마골프회 창립 공로패 박종찬(25회) 고문 △1대 사무국장 한수열(40회) △1대 재무국장 정효범(43회) △1대 경기운영이사 배봉건(44회).

◇당일 정기라운드 시상 명단=△메달리스트 박종호(31회) △우승(신페리오) 구민석(51회) △준우승 오양득(25회) △행운상 탁정환(44회).

◇격려금=△총동창회 50만원 △박종찬 고문 30만원 △이문열 덕형리그회장 금일봉.

직원 1인당 매출 10억원 이상 계측기 판매 강소기업

“활력과 혁신”
용마인의 삶터
⑤

(주)에스테크널리지 사장
김상수(45회) 동문

(주)에스테크널리지(이하 에스테크)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에스테크는 12년 전인 2009년 11월 개인사업체로 출발해서 다음해 10월 법인으로 전환한 계측기기 판매회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임직원이 연간 내자 계약 약 80억 원, 외자 계약 2천5백만 달러 정도로서 1인당 매출이 10억원 이상 되는 강소기업입니다.

에스테크의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측기’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려야 하겠군요. 가정에서 흔히 보이는 줄자나 온도계, 체중계, 계량컵 같은 것들이죠. 조사하고 싶은 대상물을 물리, 화학, 전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값을 표시함으로써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눈 코 귀 혀 손가락처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기기입니다. 대상물을 가능한 한 정확히 측정해주어야 하므로 최신 기술로 정밀하게 만들어야 해서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산업구조가 전자화, 첨단화, 미세화되면 될수록 제품의 품질을 사전에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측기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이 고정밀, 고부가가치 ‘계측기’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서 국산보다는 수입 비중이 높습니다.

에스테크는 고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제품으로 다양한 계측기기를 소개하는 전문 판매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Fluke 전기계측기, 독일 Rodhe & Schwarz 전자파 통신장비, 미국 Megger와 GE의 강전 및 압력계측기, 영국 Isotech 온도조정기, 미국 PGC 습도조정기, 일본 NF와 스위스 Regatron 직류교류 전원공급기, 일본 Graphtec 데이터 기록장치, 독일 IMC 등과 같은 세계 유수의 계측기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로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전기연구원, 삼성전기, 삼성전자, 효성중공업, 코엔스에너지, 파나시아, 광진원텍, 전자부품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테크센터 외 국공립대학교 등이며 오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학업을 모두 마친 김상수 사장은 모교를 45회로 졸업하고 부산공업대학교(현 부경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면서 계측기에 흥미를 두기 시작했다. 백마부대에서 병역을 완수하고 1997년 일본으로 건너가 4년여 유학 생활 동안 일본 내 계측기 시장을 깊숙이 들여다본다. 2002년 귀국하자마자 부산 전포동의 메카텍이란 계측장비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7년 뒤에는 이 회사를 인수해서 에스테크를 창업하게 된다. <편집위원 박종기(28회)>



계측기기 판매회사 에스테크널리지를 경영하고 있는 김상수 동문은 윤리적이고 정직한 기업의 제품을 받아 공급하기 때문에 고객의 기술적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세계 유수의 제품 취급...국내 정상급 기업들과 오랜 신뢰 구축 열화상카메라 400대 부산시교육청 납품...안전 책임뜻 관철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 사업을 경영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전공이 전자공학이라 산업용 계측기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1980~1990년대에는 일본 계측기기가 산업 전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수입되고 누가 판매를 하는지 매우 궁금했었는데 그 관심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유학도 계측기 메이커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쌓기 위함이었습니다. 귀국해서는 부산, 경남지역에서 독보적인 계측기 판매망을 갖춘 메카텍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회사에 여동생이 근무하고 있어서 입사가 자연스러웠던 점도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인생에 몇 번의 행운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현재의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에스테크’의 동종업계에서의 위치나 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계측기라는 것이 단순히 제품 하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장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춘 Total Measuring System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분야에서 부산·경남지역에서

는 에스테크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저희의 경쟁력을 기술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테크의 사업 파트너들은 높은 윤리적 기준과 법률에 따른 행동강령을 준수하기를 원합니다. 즉 생산자와 제조과정이 윤리적이고 정직해야만이 정확한 계측기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지요. 에스테크의 사업파트너 중 Fluke와 Rodhe & Schwarz와 같은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회사의 부패방지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부패방지와의 관련된 법률의 준수 확인서를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산된 정직하고 정확한 제품을 저희가 받아서 공급하기 때문에 고객의 기술적 신뢰도는 매우 높습니다.

한편 파트너사는 저희에게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는 이 리포트를 받아 분석하고 평가해서 부족한 부문에 즉시 인적, 물적 지원을 하거나 비효율적인 관리요소를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품의 원가 또한 합리적 가격으로 책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가경쟁력을 가지고 자신 있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관리측면에서의 강한 경쟁

력을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지난날 어렵고 좋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일과 가장 기쁜 순간은?

▲2015년의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교수님께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권을 획득했는데 자신은 교수의 신분인지라 저에게 차량용 충전기 설치사업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만 해도 국가보조금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서 수량은 적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할만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조금이 2016년에 40% 삭감, 2017년도에 또 30% 삭감이 되면서 수량은 조금 늘어난 반면 고정비 비율은 높아져서 도저히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간다는 신념으로 사업을 이어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계측기와 충전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충전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고배를 마시는 순간이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부산시교육청은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총 400대의 입찰(약 30억원)을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 가성비 좋은 에스테크로 결정되었습니다.

입찰 당시, 매스컴에서는 저가의 불량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보도가 한창이었고, 타지역의 교육청에 납품된 열화상카메라가 설치, 교육, AS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이므로 최고의 열화상 카메라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자는 마음으로 입찰에 참여했었죠.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개당 2만 달러에 팔리는 것을 3분의 1 가격인 770만 원에 납품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해외 파트너사는 단가를 절대로 맞춰주려 하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설득해서 결국은 가격을 관철시켰습니다. 지금 부산 시내 거의 모든 학교에 설치했고 사용법 교육까지 마쳤으며 AS도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사 21면에 넘김>

■ 인증 취득 현황

일자	발행처	제 목
2013. 9. 5.	ICR	ISO9001
2015.10.23.	(사)대한전기학회	기술상
2016. 1.29.	한국해양대학교	신학협력가족 인증
2017.12. 1. 2018.12.10.	(사)전력전자학회	감사증서
2017. 6. 2.	NICE	기술평가우수기업인증

“사업 시작 전 자신에게 글로써 냉정하게 묻고 답해야”

〈기사 20면에서 받음〉

비록 많은 이익은 없었지만,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흐뭇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지금껏 가장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납품했던 학교 중에는 우리 모교(경남중·경남고)도 있습니다.

-사업이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분야여서 종업원들의 근무환경이 대고객 서비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종업원의 복지는 어떤 형태로 시행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에스테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복지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퇴직연금(소상공인이어서 대상이 아니었지만 초창기부터 가입해서 시행 중), 상여금, 4대 보험 외에 직원들의 열정에 대한 보답으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휴가인데 공휴일 외에 징검다리 휴무는 이어서 쉬자는 분위기를 제가 앞장서서 만들고 있고, 연월차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부분이 기술 영업을 하고 있어서 주차비, 주유비 등 차량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점심식사 외 업무 활동비와 통신비도 개별적으로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은 작지만 형편에 맞춰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다. 매년 복지에 필요한 물품을 증정했고, 작년에는 경남고 신입생 10명에게 3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여 소년소녀가장과 불우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또는 어떤 취미가 있습니까?

▲저는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삶을 더 즐겁게 만들고, 신체의 건강도 증진시켜 준다고 믿습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아주 평범했고, 공부에도 일가견이 없었으며, 운동도 잘하지 못해서 항상 스트레스였지만, 현실을 인정하니 아주 편안해지더군요. 제 생각으로는 과욕과 무리한 행동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리는 것 없이 잘 먹고, 수면도 충분히 취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골프와 등산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업무가 많아서 퇴근 후 아내와 집주변 산책로에 1만보를 목표로 걷고,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주말마다 산에 갑니다. 늘 마스크를 끼고 생활해서 답답하지만, 산에 올라가서 마스크를



김상수 동문이 자신의 기업에서 판매하는 계측기기를 살펴보고 있다.



김상수 동문이 자신과 18년째 동고동락해 오고 있는 에스테크널리지 부장 이동희 동기생과 사무실에서 함께 웃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벗고 깨끗한 공기를 들이키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골프는 20년 넘게 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백돌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잔디 밟는 것이 너무 좋고 함께라운딩하는 동반자들이 좋아서 한 달에 3~4번 정도는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영위 중인 후배들에게 CEO로서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조언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만, 사업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한 걸음 먼저 내딛은 사람으로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과연 내가 내린 판단이 올바른가. 수익성과 실용성은 있는가. 자금 지원력은 있는가. 시기적으로 적절인가’ 등의 질문을 냉정하게 던지고 결정해야 합니다. 머리에 담지 말고 글로 적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효과는 탁월합니다.

두 번째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금융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끝

고 오는 경제적 충격으로 회수되는 자금은 없어도 원자재 대금이나 직원 월급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만큼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업확장을 무리하게 시도하지 마십시오. 모든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전기 설치 사업의 손해를 만회하려고 또 다른 모험을 했었다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정도 손해를 보는 선에서 끊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라는 인재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직원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져야 고객을 최고로 섬기게 되고 애사심도 가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 회사의 기둥인 이동희(45회) 부장과 직원들은 18년 이상 동고동락해오고 있어서 이들과 함께 부산, 경남에서 굳건한 터전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실패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성공하게 된 데에 내 능력 이외에 어떤 복합적인 변수가 얼마만큼 적용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노력해야 하고, 실패에 나의 부족함과 판단 착오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리아타 수처작주(自利利他隨處作主)가 가훈이자 사훈입니다. ‘내가 맡은 바를 열심히 하면 그 일이 남을 이롭게 하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라.’ 즉 어디서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하면 따로 이롭게 하려 하지 않아도 이롭게 되는 무위(無爲)의 삶을 산다는 뜻

이지요.

-자랑스런 용마인으로서 우리 총동창회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을지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선후배님들을 만나 얼굴 보고 웃고 즐기며 행복을 느끼는, 본연의 인간적 서정적 느낌을 받는 기본에 충실한 총동창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모이는 단체는 소통과 화합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총동창회는 더욱 많은 동문들과 의견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귀를 크게 열고 동문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2022년 개교 80주년을 맞아 ‘모교80년사’를 성공적으로 발행함으로써 대내외에 자랑스러운 우리 모교의 전통, 정신과 총동창회의 위상을 글로 남겨서 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화적 대격변 속에 있으므로 활기찬 동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젊은 동문들이 많이 참여하여 4차 산업 시대에 부응하는 스마트한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시대를 선도하는 플랫폼을 조성해 주십시오.

-선배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후배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당당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선배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불장군 같고 권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선배보다는 친화력이 좋은 선배로 남겠습니다. 후배들을 잘 이끌어서 선후배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 가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45회 동기들과 같은 마음으로 겸양의 자세로 총동창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후배에게는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어가 바다로 나갔다가 모천으로 회귀하고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고향 하늘로 향하고 죽는다지 않습니까? 모교와 총동창회는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모교에 대한 좋은 추억도 있고 잊고 싶은 추억도 있을 테지만 그 추억들 때문에 지금의 후배들이 있는 것입니다. 후배들은 우리 총동창회 미래의 얼굴입니다. 총동창회에 관심과 참여, 그리고 애정 어린 조언과 협력을 보내주시고, 총동창회의 일원이라는데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열과 성을 다한 4년, 인생 최고의 의미 있는 시기 보냈다”

“선도적 모델학교 발돋움 위해 혼신의 노력…전통 계승 책무성 부담도
덕형관 원형복원공사 지연으로 역사관 조성 지체 무엇보다 안타까워”

■ 경남고 퇴임 정대호 전 교장

“2017년 3월 취임식 때도 밝혔듯이 전통의 명문인 경남고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 최고의 의미 있는 시기였습니다. 아무나 근무할 수 없는 전국 최고의 명문고이기 때문에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4년 임기가 종료돼 경남고 교장직에서 물러난 정대호 전 교장(이하 정 교장)이 밝힌 퇴임의 변 첫 마디이다. 지난 2월 24일 오후 경남고 교장실에서 퇴임을 준비하고 있던 정 교장을 만났다.

“버나드 쇼우의 묘비명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말처럼 이루어 놓은 것도 없이 만4년이라는 세월이 스치듯 지나간 느낌입니다.” 정 교장은 타고로 전근 가는 것이 못내 아쉬운 듯 지난 4년이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갔다고 말한다.

부산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다 자율형공립고인 경남고 교장 공모를 통해 선임되어 2017년 3월 부임했던 정 교장. 4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동창회를 비롯한 각계의 평가를 받았다.

정 교장은 최선을 다한 자신의 지난 4년을 회고했다. “사회 각계에서 모교를 빛내고 계시는 수많은 선배님들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책무성도 많이 느꼈습니다. 나름 4년 동안 자율형 공립고인 우리학

교를 일반학교의 선도적 모델학교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동문님들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역량을 쏟아 부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했다. “크게 4가지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진로진학, 교원업무 경감, 서번트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소통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었습니다. 학부모님과 동문님들이 가장 바라는 진로진학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한 교직원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꼭 한번 근무해 보고 싶고,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 교장은 1989년 9월 사직중 교사 발령을 시작으로 백양고, 동래고 등에서 교사로 근무하였고, 부산고에서 교감을 지냈다. 교직 생활의 절반 가까이를 부산시교육청에서 장학사, 장학관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34년째 교직에 근무 중이다. 정 교장은 연제고 등학교로 전근 갔다. 연제고는 2006년에 개교한 거의 신설학교로 경남고보다 1년 먼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어 최근 괄목할 성장을 이루고 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지난 4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경남고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대호 전 교장.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정 교장은 재임 기간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못다 한 일과 아쉬운 점도 털어놓았다. “보람 있었던 일은 2017 부임 첫째 대학 진학면에서 괄목한만한 성과를 거둔 점과 야구부의 전국체전 우승입니다. 그리고 안용백 초대 교장선생님의 흉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수년 동안 학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가운데, 총동창회관으로 고이 모시게 된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공동체의 이견(異見)이 너무 많아 일일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동창회장님의 도움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정말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임기 4년 동안 덕형관 원형복원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로 인한 역사관 조성이 지체되는 점이 무엇보다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2분을 비롯한 정부 3부요인과 이태석 신부님, 불세출의 무쇠팔 최동원 선수 등을 기리고, 모교 80년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역사관 건립은 우리학교와 동문님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기에 제 임기 중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했는데 아쉬움이 큼니다.”

정 교장은 떠나면서 재학생들과 교사들에게도 귀한 말을 남겼다. “평소에도 얘기해 왔습니다만 재학생들에게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고 체득하는 인문학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독서를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학교 교직원들에게는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헌신과 열정의 아이콘 조영택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신 결과 우리학교의 입시 성적이 날로 향상될 수 있었고, 봉사하고 배려할 줄 아는 학생으로 기르는데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 교장의 학생과 교사에게 남기는 말은 바로 그의 교육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정 교장은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는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서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이며 교직원은 다소 힘들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후세교육에 열정을 쏟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정 교장은 특별히 경남고 야구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룬 성과와 속깊은 애정의 말을 남겼다. “우리학교는 최근 6년 연속 ‘학교 운동부 청렴 최우수 학교’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기록입니다. 교장실에 상패를 전시해 두었습니다만 운동부와 관련하여 청렴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최근

4년 간 프로야구 드래프트에서 가장 많은 선수가 선택된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명문 경남고는 모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전히 프로에 진출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수이다 보니, 이들을 위한 대입 진학관리가 좀 더 세밀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동창회에 대해서도 인사 겸 부탁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를 빌어 모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동창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문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인적 물적 지원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전근을 가는 학교는 동창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학교라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언을 드리면, 매 학년 초에 동창회에서 학교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지를 미리 안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간 지원 예산을 미리 알고 편성해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 교장은 연제고에서 소임을 다한 후 기회가 된다면, 교육청에 들어가서 교육행정가로서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일하고도 싶다는 향후 인생 계획도 귀띔해 주었다. 인생 이모작을 서서히 준비하겠다는 뜻이다.

“100년의 역사 바라보는 새로운 학교 구성에 노력”

■ 경남고 부임 백영선 교장

“자율형공립고 운영 곧 종료, 어떤 유형의 학교 만들지 논의 필요
학교 역사장점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 통해 ‘명문 자부심’ 심겠다”

“80년의 역사를 넘어 100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교육,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경남고에 부임한 백영선 신임 교장이 밝힌 소감 첫 마디이다. 경남고 교감(2014년 9월~2016년 8월)을 역임하고 이어 부산시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으로 활동하다 승진하여 경남고 교장으로 다시 왔으니 감회가 남다를 듯하다. 교육계 입문(일반사회 전공) 30년의 연륜으로 경남고의 재탄생이란 큰 포부를 밝힌 백 교장을 지난 3월 8일 교장실에서 만났다.

백 교장은 교감으로 2년의 ‘경남고 경험’이 각별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랑스런 慶高人’이라는 금속 글씨가 방문객을 맞이하는 곳, 소나무와 편백 숲의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 각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들이 동문이라는 사실,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학생들, 명문고의 명성을 회복하려는 동문의 의지가 강한 곳이라는 인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백 교장은 교장 공모 자기소개서 첫 시작을 ‘The world will not get better on its own(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이라 썼다.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의 말이다. 이 말처럼 학교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부임 전부터 현재를 진단하고 갈 길을 내다봤다.

“우선 2013년부터 시작한 자율형공립고의 운영이 2023년 2월이면 종료됩니다. 그리고 2025년이면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남고는 어떤 유형의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구성원간의 개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교육부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에 따라, 경남고의 본관 및 과학관의 건물에 대한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작업은 2022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만, 덕형관의 경남고 역사관 활용, 도서관과 급식실의 이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학습공간을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및 동문의 의견과 논의가 중요합니다. 어떤 학습을 할 것인가에 따라 학습공간을 달라야 합니다. 과거처럼 정해진 교실에서 수능공부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로 인한 기후위기 및 생태환경의 중요성에 따라 학교캠퍼스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디자인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백 교장이 그리는 경남고의 청사진은 속에는 ‘명문 경남고 학생’이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색깔’ 있는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다. “우수학생의 선발로 이어온 경남고의 역사가 평준화 시대로 바뀐 지 40년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교육방식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



지난 3월 1일 부임한 경남고 백영선 신임 교장은 “1명의 학생이라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국내외 우수대학에 가기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진학시키는 일은 학교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며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1명의 학생이라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대학에 학생이 한명이라도 더 들어가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명문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경남고가 명문고인 이유를 과거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을 2분이나 배출하고, 이태석 신부님이 다닌 학교라는 사실은 동문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생들의 자부심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경남고의 학생은 명문고 학생답게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그 답은 현재 학교 교육에서 찾아야 합니다. 경남고만이 지닐 수 있는 교육과정,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인지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80년의 경남고 역사와 동문선배들과의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경남고의 역사와 장점을 잘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경남고만의 색깔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런 경고인’이란 문구가 학생들의 학교 및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백 교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

재’라는 교육적 신념을 갖고 있다. 학생 개인의 개성과 꿈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학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병행하여 스스로를 적당히 강제할 줄도 아는 학생이 되도록 학교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교훈과 이태석 신부의 참사랑 정신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백 교장은 부임 이후 코로나19사태가 몰고 온 학습격차 확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코로나시대에 자율적 학습 역량이 약할수록, 부모의 경제적·인적지원이 힘든 가정일수록 학생의 학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원격과 등교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수업 및 콘텐츠 사용 역량은 향상되었습니다. 학력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역량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고 재탄생이라는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백 교장은 “수평적 조직인 학교에서 교사의 자발적 역량 발휘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각 영역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학교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창회에 대해서도 백 교장은 신뢰를 강조했다. “학교장에 대한, 교원에 대한 동창회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고인인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 향상됩니다. 학교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 외부효과로서 결국 학생들에게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과 관계없이 교직원 모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결국 어떻게 하면 재학생들이 경고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 후배들이 학력(지식과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데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동창회와 학교간의 논의와 신뢰를 통하여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 교장은 이같이 덧붙였다. “요즘 학생들이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상급학교의 진학만을 위해 여유없이 달리는 모습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자녀가 생각의 힘을 키우고 멈추어서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하는 학교가 되도록, 경고인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창 출신인 백 교장은 부산대 사범대,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가족으로 교직원생활을 하는 부인과 딸·아들 자녀를 두고 있다.

2021 경남고 야구부 현황



(보기 순: 이름 번호, 포지션/투구·타석, 키/체중)



교장
백영선

교감
조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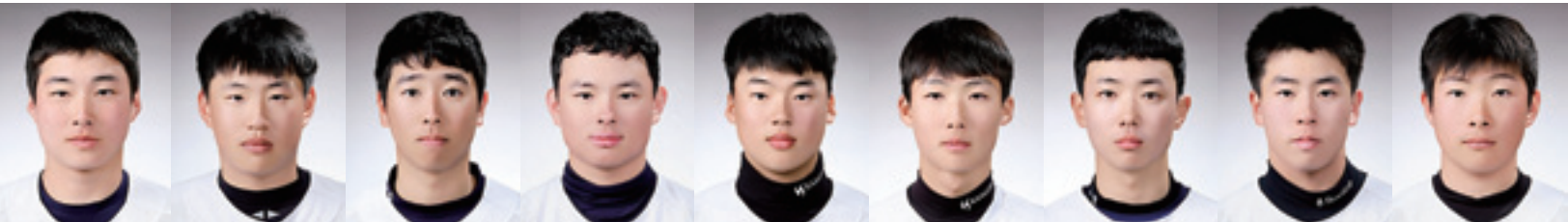
야구부장
마효걸

감독
전광렬

수석코치
정수찬

코치
박현승

코치
류은재



김민수 47
포수/우우
180/85

김주완 48
투수/좌좌
188/96

노운현 11
투수/우우
186/85

류한서 49
외야수/좌좌
17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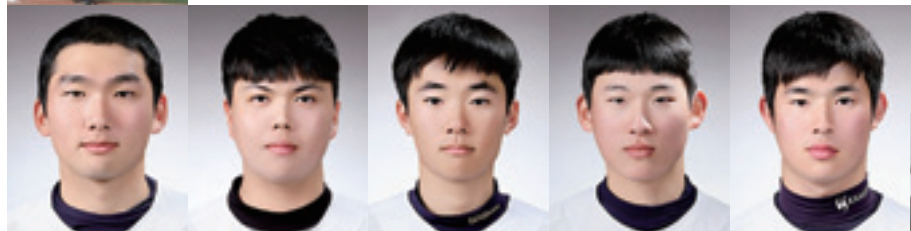
이원재 29
투수/좌좌
188/92

이정후 23
내야수/우우
183/85

이장수 41
투수/우우
181/78

이세운 14
내야수/우우
176/75

이경민 33
내야수/우우
181/86



2학년
→
(총15명)



안민성 21
포수/우우
184/94

어 용 1
투수/우우
187/107

임정형 19
투수/우우
182/87

정우중 10
투수/우우
188/88

허성철 18
외야수/우우
176/75

강민우 7
내야수/우우
170/73

권태인 42
외야수/우우
185/84

김동환 28
투수/우우
180/80

김범석 12
포수/우우
180/100



김정민 51
외야수/좌좌
179/75

박운성 27
투수/우우
185/90

박성현 25
내야수/우우
181/98

배정운 8
내야수/우우
184/75

손민석 2
내야수/우좌
17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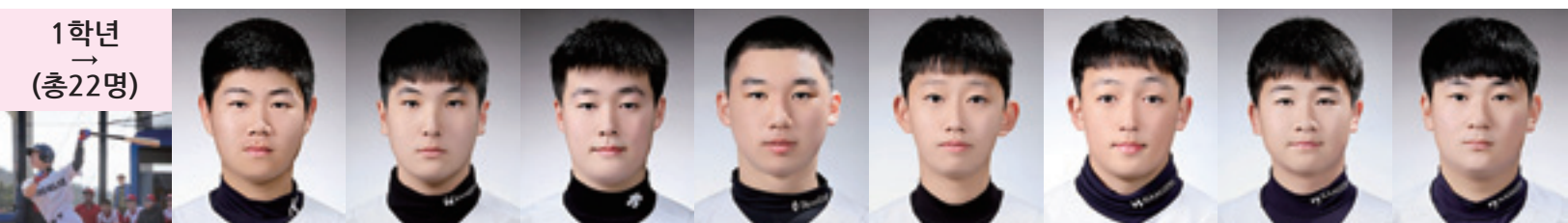
신영우 34
투수/우우
183/83

오상택 50
외야수/좌좌
177/70

임성규 16
내야수/우우
174/71

장수원 13
내야수/우우
178/92

주시윤 44
투수/우우
186/97



허준석 22
포수/우우
180/82

강병욱 6
내야수/우우
173/68

권진혁 38
투수/우우
182/76

김건우 30
투수/좌좌
17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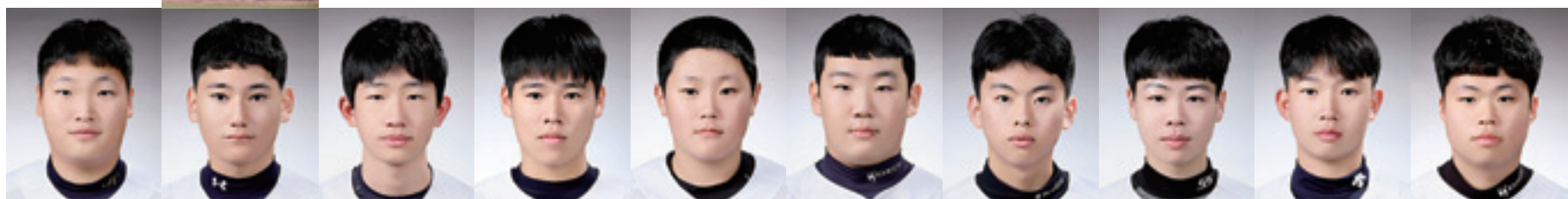
김우혁 43
투수/우우
188/102

김현우 26
투수/우우
183/76

나윤호 39
투수/우우
176/74

박민규 37
포수/우우
181/86

박준하 3
내야수/우우
177/92



송준영 36
외야수/좌좌
183/100

신민우 24
투수/우우
178/75

안경준 45
내야수/우우
176/75

윤준빈 40
투수/우우
184/93

윤하랑 9
내야수/우우
17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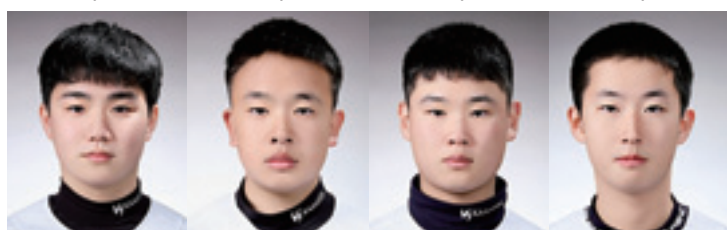
이서울 34
투수/우우
183/90

이영서 4
외야수/좌좌
178/82

이영운 5
내야수/우우
180/65

이재용 31
외야수/우우
183/90

이희성 46
포수/우우
17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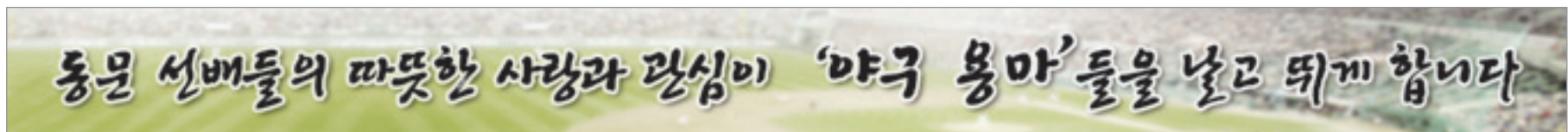


정재운 35
내야수/우우
170/74

조세익 32
내야수/좌좌
178/80

최이한 20
투수/좌좌
178/86

최태원 15
내야수/우우
179/85



2021 경남중 야구부 현황



"승리의 용사여! 우리들은 저 푸른 하늘 왕자별이다"



(보기 순: 이름 번호, 포지션/투구·타석, 키/체중)

 교장 김미정	 교감 이규민	 야구부장 김경배	 감독 김상욱	 수석코치 김성환	 코치 석지형							
3학년 → (총15명)	 김한진 25 포수/우우 180/85	 김근희 34 투수/우우 189/89	 김동욱 11 내야수/우우 183/86	 김 완 29 투수/좌좌 177/83	 김지민 17 투수/좌좌 178/70	 문성민 24 외야수/좌좌 178/75	 박종현 23 투수/우우 180/77	 박현준 7 내야수/우좌 175/70	 배경근 15 내야수/우우 179/77			
 서연우 19 투수/우우 185/86	 성지백 10 외야수/좌좌 179/83	 우정민 2 내야수/우좌 170/65	 이지훈 21 투수/우우 181/85	 정은성 1 외야수/우우 180/75	 진석현 18 투수/좌좌 186/95	2학년 → (총17명)				 강민기 22 포수/우우 173/75	 권영인 16 투수/우우 183/74	 박준건 36 외야수/좌좌 172/72
 서희진 47 투수/우우 174/68	 유진준 6 내야수/우우 172/65	 윤지유 12 포수/우우 168/71	 이서준 42 내야수/우우 176/69	 이윤성 35 내야수/우우 162/85	 이준우 33 외야수/우우 181/70	 이준재 20 포수/우우 172/80	 이지민 27 내야수/우좌 168/62	 이채운 투수/우우 173/75	 장진혁 14 내야수/우우 171/71			
 조지훈 45 투수/우우 177/80	 차유준 39 투수/좌좌 180/69	 최민제 8 내야수 우좌 175/75	 최장우 31 투수/우우 170/70	1학년 → (총5명)				 서정휘 5 내야수/우우 160/60	 안재현 26 외야수/우우 164/71	 장은우 투수/좌좌 162/58	 최우영 포수/우우 174/70	 하현승 9 투수/좌좌 180/70

*1학년 선수는 아직 진용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리틀선수팀 선수 9명이 9월에 전학 옵니다.

경남고, 백영선 교장 취임·제78회 입학식 거행

경남고는 지난 3월 2일 제22대 백영선 교장 취임식과 제78회 입학식을 거행했다. 코로나19사태로 방송실과 1, 3학년 각반 교실에서 방송으로 진행되었다. 2학년은 가정에서 원격으로 참여했다.

입학식은 학교장의 입학허가, 신입생 대표의 선서, 신입생과 재학생 간

의 상호 인사, 장학 증서 수여 등으로 진행되었다. 입학생은 모두 150명이다. 신입생 중 김정운, 박준서, 정현욱, 장재민, 문지환, 장예준, 최형욱, 박지원, 최주한, 이승준 등은 입학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경남중고 발전위원회로부터 장학 증서를 수여 받았다.



경남고 신입생에 대한 학교장 입학허가 선언 모습.



재학생 신입생 대표 상호 인사.

경남중, 신입생 5학급 146명 입학

경남중은 지난 3월 2일 시업식과 입학식을 가졌다. 신입생은 5학급 146명이다. 입학식 유튜브 동영상을 가정으로도 보냈다. 경남중은 신학년을 맞아 3월 2~5일 신입생과 재학생의 학교 적

응력을 높이기 위해 ‘담임주간’을 운영했다. 전 교직원이 2월15~19일 참가한 ‘교직원 워크숍’ 등을 통해서 제작, 발간한 ‘슬기로운 경남중 학생생활’ 책자가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경남중은 학교설명회와 학부모총회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경남중 신입생 및 재학생 오리엔테이션 모습.

한편 경남중은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추진하는 2021년 교육청공모사업에 응해 여러 사업이 선정되었다. 학교공간혁신 추진(4억원) 두드림학교 운영(기초학력 신장 500만원) 민주시민 성장학교운영(500만원) 방과후학교활성화(500만원) 무한상상실 운영(1,000만원) 등이다.

덕형리그, 웅동 BPA구장서 치른다

4월 10일 개막전...15개팀 56경기 소화 이문열(29회) 회장 “땀 수 있는 게 행운”

지난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기 취소의 불운을 겪은 덕형리그가 2021년 시즌 대회 운영방안을 확정짓고 4월 10일부터 경기에 들어간다. 지난 2월 23일 오후 충동창회관 강당에서 덕형리그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서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안이 보고됐고, 2021년 리그 진행 예정 보고가 있었다.

경기 장소가 경남고 운동장에서 진행 웅동의 부산항만공사(BPA) 신항만구장으로 변경됐다. 물론 코로나19로 학교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한 탓이다. 먼 거리와 교통편 등 불편함이 있지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 형편이다. 경기는 4~12월 매월 둘째 토요일

1회 치러진다(4월에는 2회). 참가팀은 15개팀이다. 실버리그(29, 33, 36, 37, 38, 40A, 40B, 41회)와 블루리그(44, 47, 51, 52, 53, 54회, 구형)로 나눠 대회가 진행된다. 결승전은 각 리그 2위끼리 3, 4위전을 갖고, 각 리그 우승팀끼리 1, 2위 자리를 겨룬다. 경기수는 모두 56경기이다. 기존의 120경기에서 절반 이하로 쪼갠다. 모든 경기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치른다. 시합볼은 지난해 구입해 잠자던

경기구를 사용한다. 덕형리그 임원진은 회장 이문열(29회), 사무국장 김정곤(38회), 경기이사 강훈(41회), 팀장 박형규(43회) 동문이다. 이문열 덕형리그 회장은 “지난해 대회를 치르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올해는 경기수는 대폭 줄었지만 이 정도라도 운동장에서 땀 수 있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대회 장소의 불편함은 참가 열의로 극복할 것이다. 아마추어 야구리그 중 참가 선수의 평균연령이 최고령 리그이다. 무엇보다 안전에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덕형리그 이문열 회장이 대표자회의에서 올시즌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21년도 덕형리그 대진표 ◆

일자	시간	9:30	11:30	13:30	15:30	17:30	19:30	비고
4월 10일	54:구형	41:33	53:44	36:40A	29:37			
4월 24일	38:40B	40A:37	51:47	33:29	54:52			
5월 8일	53:52	36:40B	37:38	41:29	구형:44	33:40A		
6월 12일	44:52	33:38	29:40B	54:51	41:37	구형:53		
07월 10일	구형:47	40A:40B	44:51	29:38	54:53	41:36		
08월 14일	40A:38	53:47	37:40B	54:44	33:36	51:52		
09월 11일	53:51	40A:29	54:47	41:40B	구형:52	36:37		
10월 09일	33:40B	구형:51	36:29	41:38	44:47			
11월 13일		36:38	41:40A	47:52	33:37			
12월 11일		3,4위전	결승전					

프로야구의 용마들, 2021년을 꿈꾼다



이대호 선수



서준원 선수



최준용 선수

롯데 잔류 이대호 “한국시리즈 우승 목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프랜차이즈 스타 이대호(55회) 동문이 지난 2월말 계약 기간 2년, 총액 26억 원(계약금 8억 원, 연봉 8억 원, 우승 옵션 매년 1억 원)에 구단과 잔류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 구단은 이 동문이 해외 진출 시기를 제외하면 줄곧 한 팀에서만 활약했고, 핵심 선수로 팀에 기여한 부분을 높게 평가했다. 롯데는 이대호의 경력을 예우하는 뜻이 담긴 이번 계약을 통해 현역 생활 마지막 시기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2001년 입단한 이대호는 15시즌 동안 통산 1,715경기에 나서 타율 0.309, 332홈런, 1,243타점을 기록했다.

이 동문은 “좋은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게 돼 구단에 정말 감사하다. 2년 내로 한국시리즈 우승을 한 뒤 현역 은퇴하고 싶다”고 밝혔다.

컨디션 좋은 서준원, 선발투수 경쟁

○...롯데 자이언츠의 서준원(73회) 동문이 선발 투수 경쟁에 뛰어들었다. 동계훈련을 통해 몸 컨디션을 잘 다듬은 서 동문은 지난 3월 16일 전년도 한국시리즈 우승 팀 NC 다이노스와의 시범경기 선발로 출전, 투구수 42개에 최고 147km의 위력적인 구위로 NC 타자들을 압도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서 동문은 3이닝 1안타 3볼넷 무실점으로 맹활약, 올시즌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프로 3년차인 서 동문은 시속 145km 안팎의 강속구를 던지는 사이드암 투수다. 사이드암은 같은 구속이라도 더 빠르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다.

기대주 최준용, 올시즌 신인왕 도전장

○...롯데 마운드의 기대주 최준용(74회) 동문이 올시즌 신인왕에 도전장을 냈다. 프로 2년차인 최 동문은 지난해 다소 늦게 1군에 데뷔한 탓에 출전 경기수 미달로 후



롯데 한동희(사진 왼쪽 첫 번째) 동문이 경남고 야구부에 야구용품을 기증했다.

한동희 ‘후배사랑’, 경고에 야구배트 기증



한동희 선수

○...롯데 자이언츠의 한동희(72회) 동문이 지난 3월 10일 모교 경남고를 방문, 야구부에 1,300만원 상당의 야구배트를 기증했다. 한 동문은 후배들에게 진심어린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하며 기념품으로 친필 사인볼도 증정했다. 한 동문은 “성적이 좋은 선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 앞서 사회공헌활동을 한 선배들의 영향이 컸다. 부족하겠지만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동문은 선배 이대호(55회) 동문과 함께 지난해 12월 사랑의 연탄 2만 5,000장을 기부했다. 한편 롯데 4년차 내야수인 한 동문은 2021시즌 연봉 재계약에서 팀 내 가장 높은 연봉 인상률 134%를 기록하며 연봉 1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한 동문은 올시즌 목표를 3할 타율, 30홈런, 100타점으로 잡았다.

보에는 들지 못했다. 최 동문은 “팀이 가을야구를 하는 것이 먼저이다. 개인적으로 92년 이후 끊긴 롯데 출신 신인왕의 명맥을 잇고 싶다”면서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회전 수 높은 시속 150km의 빠른 공이 주무기인 최 동문은 직구와 슬라이더에 체인지업, 커터 등 새로운 구종을 장착해 새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17회 산악회 = 해운대팀 산행



지난 3월 7일(일) 해운대팀은 기장군청을 지나 신현 마을에서 봉대(봉수대)산 코스로 산행을 다녀왔다. 또 지난 14일(일) 장산역에서 호수공원을 거쳐 체육공원~마고당~너털정~장산습지 반딧불이 서식지~헬기장~장산마을을 경유하는 코스로 산행을 다녀왔다.

17회 산악회 = 영도팀 산행



지난 3월 14일(일) 영도팀은 중앙공원(대청공원)~안창마을을 지나는 코스로 산행을 다녀왔다. 포근한 날씨로 등산객들이 봄비고 들꽃도 감상하며 봄나들이 같은 산행을 즐겼다. 또 지난 21일(일)에는 석남고개에서 능동산~배내고개로 산행을 다녀왔다.

18회 동기회 = 정기총회



지난 2월 25일(목) 서면 유원오피스텔 19층 동기회관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조성재 회장의 유임이 결정되었다.

19회 재경산악회 = 관악산 산행



지난 3월 14일(일) 7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과천역~과천교회~산불감시탑~과천능선코스~마당바위~같은 코스로 하산~산불감시탑~과천향교 코스로 산행을 다녀왔다. 산행거리는 약 4.1km이고 산행시간은 2시간 34분이 소요됐다.

23회 동기회 = 동기생 농장 견기

지난 2월 27일(토) 동기생들이 밀양 비학산 등산 계획은 통제로 부득이 동기 소유 농장을 한 바퀴 걷는 것



으로 같음하였다. 농장 한 바퀴라 해도 3시간 걸리는 어마무시한 규모이니 등산이나 진배없었다. 귀갓길에 농장주의 배려로 햇개열매, 한재미나리, 밤을 각각 한 보따리씩 챙겼다. 동기의 후덕함에 적당한 운동의 즐거움과 한 보따리의 선물에 모두가 행복한 표정으로 무사히 귀가했다.

23당구회 = 1차 친선경기



23회 당구회는 지난 3월 31일(수) 범일동 스카이다우장에서 1차 친선경기를 가졌다. 올해 처음 진행으로 부족함이 많았으나 회원들의 협조로 무난히 끝나 나름의 성과와 즐거움도 있었다. 1차 친선경기 우승은 안병화 동기가, 준우승은 감인홍 동기가 차지했다. 참석자: 감인홍 김기룡 김기열 김상호 김창범 김태홍 김현구 박영창 박창수 송충송 안병화 이상운 정동일 정연철 홍덕표 황원태

28산우회 = 시산제 겸 근교산행



코로나로 인하여 1월 산행을 못한 28산우회(회장 김정유)는 몸이 근질거림을 참지 못해서 하산주(下山酒)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8명의 산우가 마산 무학산으로 간이 시산제를 겸한 모처럼의 근교 산행을 다녀왔다.

참석자: 김이정 박재훈 여인남 옥상곤 이인재 조영제 최연옥 허남식

30회 북구모임 = 정기모임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했던 모임을 지난 3월 13일(토) 오후 3시 화명동 SBS당구장에서 하였다. 지역모임으로는 2021년 집행부가 출범하고 처음이고, 유일하게 부산의 지역모임으로 다음 달에는 야외에서 단합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참석자: 구을석 김유기 김정형 신영주 오수동 이철호 정 광 정채화

33산우회 = 구덕산에서 시산제



33산우회는 지난 2월 28일(일) 모교가 한눈에 보이는 구덕산 정상에서 산사랑 14명이 참석하여 조출한 시산제를 지냈다. 시산제 후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고,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등 2년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다..

36회 동기회 = 집행부 모임



지난 3월 19일 용호동 W아파트 상가2층 중식당 하준에서 집행부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2020년도 결산서 제출(추후 감사 승인검토)과 동기회장 인수인계 등 기타 안건들을 논의하였다.

참석자: 김종백 이성호 이학수 최승호

38회 동기회 = 김현민 동기 격려 모임



차관급 국가수리연구소장으로 임명된 김현민 동기를 격려하고자 지난 3월 3일(수) 38회 동기들이 모였다. 3월15일부터 대전 대덕연구단지출근하는 김현민 교수에게 앞으로 영광이 있기를 기원했다.

참석자: 구동주 김태호 김현민 박근출 박정민 윤경만 이종명

54회 동기회 = 박종찬 고문과의 만찬



지난 3월 20일(토) 조중완 54회 동기회장, 김영빈 사무국장, 임길환 부회장, 정준섭 기획국장은 야끼짬(조중완 동기회장 운영)에서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과 만찬을 하였다.



다시 모교사랑을 생각합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서신

동문 여러분 다들 안녕하십니까.
만개한 벚꽃도 잠시, 떨어지는 벚꽃들이
거리를 수놓고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38대 총동창회장에게
취임한 지도 벌써 두달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두달이지만 저는
가능한 한 많은 행사 혹은 회의에 참석하며
저녁으로도 지역구 집행부들을 방문하는
등 총동창회 현안 파악에 힘써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총동창회의 일원이 된
지도 몇십년이 되었습니다만 동창회에 대
한 관심과 열정이, 특히 30대 이후 후배기
수들 사이에서, 지금처럼 뜨거웠던 적은 일
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박종찬 고문
의 삼년여에 걸친 헌신과 희생에 힘입은 바
큽니다. 무엇보다 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는 저는 가슴 뿌듯하고, 동창회의 앞날에
확신이 생기면서 이 좋은 기운을 더욱 북돋
고 키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
짐을 하게 됩니다.

총동창회의 활동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
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동문간의 화합과 친목 증진으
로 우리 경남중고 총동창회는 이제 어느정
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모교지원입니다만, 여기서는
사정이 사뭇 다릅니다.

모교에 대한 사랑은 여러가지 형태를 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첫번째는 모교의 학력
을 증강시켜 보다 많은 수의 재학생이 보다
많은 수의 우수한 대학 혹은 학과에 진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때 한강 이남 제일이라는 자부심이 가
득했던 경남고는 평준화 이후 점점 학력수

준이 저하되어 이제 진학률이라는 측면에
서만 본다면 냉정하게 평가해서 삼류고 수
준입니다.

동창회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라도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학력이 삼류고인 학교를 졸업한 후배에
게 먼 옛날의 명성을 상기시키며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는 쉽
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제가 동창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모교 학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
습니다. 박종찬 고문과 저를 포함한 현 집행
부는 그간 전임교장 한차례, 신입교장과 두
차례 모임을 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 총동
창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모
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습니다.

우선, 교장을 포함한 교수진의 열의를 높
이고 사기를 진작시켜 학생들에게 뚜렷한
목표의식을 심어주고 기운을 강화하며 심
화학습을 가능케 해야 합니다. 다행히 신입
교장은 경남고 학력재건에 대해 열정이 넘
치는 분이고, 총동창회 차원의 적절한 뒷받
침만 있으면 교장 재임기간 중에도 얼마
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약 십여가지의 소박하고도 실
질적인 지원 희망 사항을 전달받았는 바 저
희 집행부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대
한의 지원을 할 까 합니다.

전통적으로 모교에 대한 지원은, 총동창
회에서 주로 야구부를, 재경동창회에서 행
정적인 부분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
이 수년전 재경동창회에서 정관을 수정해
재경대학생 자녀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남

는 돈을 모교지원에 쓰기로 하였는바, 모교
에 대한 지원은 점점 줄어들어 작년같은 경
우 이천수백만원에 그쳤습니다. 또한 연초
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교에서 요청이
오면 시혜성 비슷하게 내려주는 식이 되어
애초에 학교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재경동창회도 나름대
로 연유가 있을 것이고, 그 정책은 존중되어
야 합니다. 이제 모교에 대한 지원은 힘들더
라도 저희 총동창회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새로운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일에는 물론 재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 총동창회관 건립기금 모금운동
이 끝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이 모
금운동을 시작하는 데 대해 피로감을 느낄
동문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한편으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총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한껏 높
아진 지금이야말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모교학력 문제는 더 이상 대
강 넘어 갈 수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태석 신부 추모공원과 덕형관 역사관
문제도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동문들의 자
금심 고취와 지역사회 보은이라는 차원에서
꼭 추구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우시
더라도 발심하셔서 부디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중물을 대겠습니다.

기왕에 출연한 육천몇백만원에 연말까
지 사역사천만원을 보태 다이아몬드가 되
겠습니다. 뜻있고 재력있는 동문들이 있어
올해안에 제1호, 제2호 다이아몬드가 나와
준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겠습니다.

박종찬 고문께서도 일역원 쾌척을 약속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고학으로 졸업
하고 조선소 경력 십년 후 조그마한 조선기
자재 무역사무실을 차려 삼십여년 대과업
이 운영해 오면서 사회에서 분에 넘치는 혜
택을 받았습니다. 돈은 불편하지 않을 만큼
만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돈에 대한 저의 기
본 철학이기도 하고, 이제 사회에 돌려드리
기 시작할 때가 되어 모교에 조금이나마 보
탤을 주게 되어 기쁩니다.

영수증 발급 관계 규정이 올해부터 바뀌
어 지정기부단체로 기재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절차가 마무
리 되는대로 6월경부터 본격적인 모금운동
을 시작할까 합니다.

영수증이 필요없는 경우 -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
니다.

부산은행 101-2074-0344-01 경남중고
총동창회 김대욱

춘소일각치천금 (春宵一刻值千金)이라
했습니다.

이 좋은 시절에 이 짧은 글이 혹 심기를 불
편하게 해드렸다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은 건강에 유
의하십시오.

23회 동기회, 경남고에 벽시계 50개 기증



3월 5일 기증되었다. 2019년 모교를 방

23회 동기
회 이름으로
경남고에 교
표가 새겨진
벽시계(사진)
50개가 지난

문한 유석산 동문 등이 각반 교실의 각
양각색 벽시계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
이 들어 동기들과 뜻을 모아 한 기증 약
속이 이행된 것이다. 학교는 선배들의
정성과 모교 사랑을 담은 벽시계를 각
반 교실과 특별실에 걸어두도록 배부
하였다.

이태석신부기념음악회 개인연습 돌입

용마코러스, 최상규 단장 등 임원진 확정

용마코러스가 찬란한 봄날의 기운을
받고 개인 연습에 들어갔다. 오는 5월
18일 열리는 이태석신부기념음악회 출
연을 위한 것이다. 이번 공연에 부를 곡
은 '내 영혼 바람 되어'와 '푸르른 날' 두
곡이다. 단원들은 단톡방에 올라온 음
원과 영상을 통해 자가연습이 한창이
다.

용마코러스는 2021년 임원진을 발표
했다. 단장 최상규, 부단장 김형수, 발전
위원장 안병규, 사무국장 박근태, 재무

부장 문형준, 대외홍보부장 신봉준, 영
상(기획)부장 김형, 악보장 김석훈, 감
사 김동원·박형규, 테너 1파트장 안승
진, 테너 2파트장 김원철, 베이스 1파트
장 백기현, 베이스 2파트장 김석훈, 지
휘자 조성빈, 반주자 박소미. 고문단은
안창범, 노덕현, 장춘식 동문이다.

올해 예정된 주요 행사는 △정기연주
회(11월 중) △이태석신부기념음악회
(5월 18일 오후 7시 30분 문화회관 대극
장) △부산지역고교연합합창제(10, 11
월 중) 등이다.

용마산악회 집행부, 연간 행사 숙의 산행

33산우회와 합동 진행

용마산악회는 지난 3월 14일(일)
올해 산행 일정을 숙의하기 위해 집
행부 산행을 금정산 일대에서 가졌
다. 이날 산행은 33산우회와 합동으
로 진행했다(사진). 산행코스는 남문
산성고개 - 대륙봉 - 남문망루 - 파
리봉 - 물레방아가든(총 3시간 산행)
이다. 이날 논의에서 올해 산행은 코
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
키로 했다. 현재 4차가 남은 100대명
산 등반도 마찬가지이다. 차기 집행

부 이양 문제 역시 같은 절차를 따르
기로 했다.

◇참석자=▲용마산악회-김법영(회
장) 김종만 지창근(부회장·이상 33회)
서석권(차기회장) 이인욱 신동해(부회
장·이상 35회) 이동희(36회·차기 수석
부회장) 김진영(37회·사무국장) 윤원욱
(39회·영상팀장) 문상현(41회·산행대
장) 이종민(41회·차기 사무국) ▲33산
우회(가족 4명 포함)-김태훈 정영학
(김미경) 민병현(공미형) 남택은(김미
란 윤서현).



박명진(33회) 동문, 김해상의회장 연임

박명진(33회·사진) 동문이 경남 김해상공회의소 제13대 회장에 연임됐다. 2018년 3월부터 김해상공회의소 제12대 회장을 맡아온 박 동문은 지난 3월 18일 열린 김해상공회의소 임시의원총회에서 상의 의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회장에 재추대됐다. 임기는 2024년 3월까지이다. 경남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동문은 지난 1991년 고려개발(주)을 설립한 뒤, 다양한 개발 사업을 펼쳐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주), 에이치비관광리조트(주), 에이치비힐링타운(주), 에이치비종합레포츠(주), 아이스퀘어쇼핑몰 등 다양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박 회장은 “회원들의 만장일치 재추대에 고마움과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트렌드 앞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변화 속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장인화(35회) 동문, 부산상의 24대 회장 취임



17일 열린 부산상의 임시의원총회에서 상의 의원 120명 투표에 66표를 얻었다. 상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였다. 임기는 3년이다. 지난 3월 22일 취임한

장인화(35회·동일철강 회장·부산시체육회 회장·사진) 동문이 부산상공회의소 제24대 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3월

장 동문은 상의 회원들에게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상의의 주인이다. 이제 경쟁의 시간은 가고 화합의 시간이 왔다”며 화합을 강조했다. 이어 장 동문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부산 산업구조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회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120명 상의 의원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부산상의 새 역사를 창조하자”고 호소했다. 장 동문은 “선후배, 동료 상공인들과 손잡고 부산 경제 대변력의 시대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회원 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의 나침반이자 사령탑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 정

정학영(19회), 동주대 총장 부임



△정학영(19회) 동문이 지난 3월 1일자로 동주대학교 총장에 부임했다. 정 동문은 경남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메리놀병원 정형외과 과장, 석파학원 이사장과 동주대학교 부학장을 역임하였다.

강부원(31회), BPA 경영본부장 연임



△강부원(31회) 동문이 부산항만공사(BPA)의 경영본부장직에서 연임됐다. 부산항해운물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강동문은 2019년 2월 신임 경영본부장으로 선임돼 지난 2년간 BPA의 기획과 경영관리, 사업계획, 예산수립, 재무관리 등을 총괄해왔다.

장성욱(33회), 방어진고 교장 승진발령



△장성욱(33회) 동문이 지난 3월 1일자로 울산 학성고 교감으로 재직하다 방어진고 교장으로 승진 발령받아 부임했다.

박철중(36회), 영남알프스 9봉 완등



△박 철 중(36회) 울산 지역동창회 사무국장이 올들어 연초에 울산 근교 영남알프스 내 해발 1,000m 이상 9봉 등정에 성공했다. 박 동문은 지난 1월 2일 가지산을 시작으로 2월 11일 고현산까지 한겨울 1개월 10일에 걸쳐 영남알프스 9봉을 완등했다.

김현민(38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김현민(38회·부산대 학 자연과학대 수학과 교수) 동문이 지난 3월 15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소재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제6대 신임 소장으로 부임했다. 김 동문은 지난 2월 하순 IBS(기초과학연구원·원장 노도영) 이사회에서 후보자로 내정되었다. 김 동문은 부산대 수학과(해석학) 학·석사 이후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에서 수학(수치해석학) 석·박사를 받았다. 이후 부산대 수학과 교수, 학과장을 거쳐 현재 빅데이터 기반 금융·수산·제조 혁신 산업수학센터장과 수리연 운영위원회 위원, 대한수학회 부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박이현(38회), 대한육상연맹 이사



△박이현(38회·부산육상연맹 전무) 동문이 지난 1월 26일자로 대한육상연맹 이사로 임명되었다. 임기는 4년이다. 박 동문은 총동창회관 1층 우미옥식당을 부인과 함께 경영하고 있다.

백기현(39회), '초량어묵' sbs 생방송 소개



△백기현(39회) 동문이 경영하는 '초량어묵' 가게가 지난 2월 중순 sbs생방송투데이(전국 방송)에 방영되었다. 이 방송 이후 '초량어묵'은 주문량

이 폭주하고 네이버 실검 1위까지 올랐다. 백 동문은 갖은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고객의 입맛을 공략, '재구매율이 높은 어묵집'이란 칭찬을 받고 있다.

백창봉(41회) 동문,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백창봉(41회) 동문이 지난 2월 15일 동아대로부터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학위논문은 '노사간 편견과 협상결과와의 관계-현대자동차의 사태를 중심으로'이다.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훌쩍 넘어서까지 향학열에 불타 박사학위를 취득한 백 동문은 동문사회에서도 '소통의 달인' '웃음 전도사'로 잘 알려져 있다.

좌용주(33회) 동문, '테라섬의 분화...' 책 출판

좌용주(33회·국립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 지질학과 교수·사진) 동문이 지난 2월초 <테라섬의 분화, 문명의 줄기를 바꾸다>(사진)를 펴냈다. '대재앙이 남긴 흔적들을 찾아 역사의 퍼즐 맞추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난 융합의 결정판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좌 동문은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자연현상을 파헤친다. 플라톤이 저술한 두 편의 대화편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를 통해 아틀란티스의 실체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출발해 후기 청동기시대의 에게해 문명의 전환점을 해쳐나

간다. 구약성경에 서술된 모세의 엑소더스 이야기를 통해 후기 청동기시대 이집트-가나안-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의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을 추적한다.

두 이야기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로서 아직 구체적인 연대가 결정되지 않으며, 만약 하나의 시간 축이 설정되면 동지중해 인근 후기 청동기시대의 모든 편년이 수정되어야 한다. 그 축을 담당하는 것이 당시에 있었던 테라섬의 화산분화이다. 그 재앙적인 화산폭발의 시간을 찾아가는 여정은 과학적인 탐구의 결과로 소개된다. 좌 동문은 모교 재학시 도서관에서 활동했다.

임무홍(25회) 동문, 라오스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

지난해 말 주(駐)라오스 대사 부임차 현지로 떠났던 임무홍(25회) 동문은 지난 2월 5일 분냥 보라췌(Bo unnhang Vorachith) 라오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



출(사진)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중부 산지구동창회 2대 회장을 역임한 임 동문은 지난 설 명절 즈음 동문 선후배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여 근황을 알려왔다.

2021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총 1,208명> (2021. 3. 26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74-0332-05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김대옥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선납부자 명단(회보구독료)

11회 김광석 2024년
13회 박홍표 2022년, 안성문 2029년,
이경재 2030년
15회 임영길 2022년

16회 민신웅 2023년
18회 박기주 박석도 2022년,
홍우재 2024년
23회 박재호 2028년, 신언극 2022년
25회 김연석 이성웅 2022년,
임창운 2051년

28회 안풍 2022년, 하재근 2028년
30회 박정국 2022년, 박철우 2027년
33회 최웅남 2030년
34회 이성엽 정하태 2022년
37회 서동욱 2024년, 이수환 2022년
38회 권두성 2029년, 정재형 2022년

46회 한영길 2022년
48회 김춘호 2023년
50회 박중현 2028년
51회 신현식 2029년
54회 이찬희 2022년, 엄도용 2024년
69회 정민기 2023년

3회(3명)
윤태윤 이안규 하덕모

4회(5명)
김희수 박흥기 양종학 장수호 정치근

5회(8명)
김재관 김진휴 박장후 상기중 오배식 이문기
임성엽 진도영

6회(10명)
김중철 박웅진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오영은
이희문 임경택 경건용 정승화

7회(11명)
김갑성 김용우 노상석 박환배 배중현 송외득
오장은 윤용우 임성극 임의택 하근수

8회(11명)
김봉길 김재범 박재범 박희옥 안중열 엄덕량
이종택 이준혁 정금출 최재혁 홍광수

9회(11명)
김기관 박영복 서해량 안규현 유병철 윤일명
장동근 전인규 정 록 지상봉 한동대

10회(17명)
강희운 김성규 김정학 심영환 이계창 이승영
이승준 이윤수 이재순 임정우 장기상 전영대
정상수 정종만 조길수 진 강 최병도

11회(28명)
강용대 공상기 권병용 김광석 김용만 김윤택
김인섭 김태호 박관호 박창순 박희태 서자윤
손봉길 심재룡 심재홍 양수택 오정광 이균우
이상태 이재진 이종백 장영권 정문표 제정오
천금준 천동조 최득호 최창욱

12회(41명)
강본순 구진웅 김동열 김부생 김상렬 김영보
김영수 김우성 김장욱 김중련 김종일 김지희
문준화 박문기 박상도A 박정윤 배기원 배병
일 배중섭 변동만 서병기 손제준 심용치 안
상직 안영배 엄태섭 오세정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수영 이승태 이현달 정대식 정수복
정호중 조한기 조홍래 추영재 허은도 홍두표

13회(49명)
강종원 고송구 고시준 구문평 권영계 김동호
김신부 김정균 김중의 김치득 김한규 문 창
박길만 박안남 박정웅 박종탁 박홍표 배대결
서시주 성경호 송신의 신 명 신민철 안성문
윤기갑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근모 이상문
이창열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정덕치 정로상
정영화 정은섭 정중현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상호 최성욱 최태환 한병조 허갑도 허 훈
황일인

14회(31명)
강주신 김동화 김재도 김창기 김 총 김화옥
노수덕 문운용 박남조 박병선 박창홍 배중현
백태우 신기석 신준호 윤영현 윤태규 이광언
이길미 이명재 이호근 이훈일 조광명 진성태
최낙섭 최충락 하문수 한수길 허 증 황원재
황준성

15회(40명)
강민조 강부부 강창일 김경일 김소현 김염훈

김옥규 김종태 김중환 김충식 김판열 남기주
박영무 박찬호 박효가 배 훈 손부홍 신용기
오봉석 윤우경 이상호 이의일 이정부 이중수
이중희 임영길 장봉고 정석우 조영일 최광웅
최무길 최병우 최원수 하영수 하정부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종덕 홍익찬

16회(33명)
강상권 강영주 강종국 강진중 김광용 김두웅
김박일 김정우 김 조 김중덕 김충길 민신웅
박두영 설희순 성기식 손송방 송규정 송자문
엄종원 윤효주 이경환 이길홍 이무근 이양근
이영재 이종철 정우광 조길우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하희진 한일랑

17회(24명)
감정은 김길호 김동수 김동조 김용남 김중성
김지창 박인사 박재규 박홍식 송유근 송인문
신홍규 어윤대 윤성욱 이수창 임우택 장길성
장호남 전대홍 정량부 최성호 하영수 허진행

18회(32명)
갈영수 강영호 강인섭 고병현 김경걸 김경권
김경화 김광웅 김귀언 김기섭 김재창 김중철
김지호 박건태 박기주 박상욱 박석도 박 용
박용주 박종구 박준성 서부원 손찬규 안창범
우원호 윤봉수 임채영 전영석 최진수 한기대
허만조 홍우재

19회(51명)
강동완 김경재 김규하 김덕규 김덕수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운 김영태 김인선 김재근
김경우 김진국 김진호 노덕현 박상택 성낙출
성한진 손기태 손철수 신동인 안정모 오태수
유문환 윤수상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상우 이상환 이용조 이용홍 이장희 이창도
이창운 이창홍 이춘만 임채원 장성규 장홍의
전영석 정규병 정태을 조성환 진수상 최상대
함진복 허남걸 황태원

20회(28명)
강석근 김성룡 김중민 김형오 남기석 문시영
박용덕 박 준 박지오 백완균 백창열 손춘수
심두수 안재상 오기현 유근준 윤병규 윤우성
임세호 장상배 장춘식 정승창 조운태 최명호
최상인 최석립 최중경 허남균

21회(41명)
강영도 강원태 강창수 공기화 구현수 김대웅
김동우 김유건 김현태 마상준 박재선 박주용
배영일 변창섭 서병문 신태윤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오거돈 오태규 육화원 이문수
이재택 이재호 이 혁 임경범 전기환 정영호
조상호 조성근 조현국 진영천 최동완 최민석
최점수 최종린 하영준 한대운 허창수

22회(35명)
강호일 금명환 김광국 김동욱 김성재 김성태
김승규 김원주 김일봉 김정민 김진철 김해현
노평호 박규묘 박재상 박홍조 배병환 배춘식
변중호 심재복 윤동원 이윤재 이춘식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진식 정해진 조흥기 최성열
하성일 하현성 한대길 한형우 허승조

23회(34명)
고용석 구영수 구자섭 김기열 김상태 김석현
김영기 김익근 김태용 김태홍 박영호 박재호
배중순 백창영 서승환 신동규 신언극 안병울

오도준 유원형 유진무 윤병조 이병찬 이수백
이정욱 장백기 전영조 전재홍 정상건 정용호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한명경

24회(42명)
강동우 광두희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도현
김동운 김만복 김명배 김승탁 김영민 김인구
김현태 남진현 박극제 박운성 박홍규 변용준
서정대 서정득 안상수 안형수 원동희 윤석만
이동진 이명복 이영태 임민호 장세호 장현동
전대현 전용우 정광윤 조영태 조용화 조현찬
진병건 최현규 태창엽 하재갑 한상렬 황성훈

25회(69명)
고명식 구도근 구자훈 김광돈 김길수 김대현
김동진 김상겸 김수국 김수석 김연석 김영수
김옥철 김우형 김익수 김정학 김중현 김진우
김창호 노태호 문재인 박건수 박경립 박동건
박세철 박을영 박종기 박종찬 박진상 박홍기
백영건 서병수 서재규 송동준 신경학 신성기
신성찬 안희석 양승욱 예중복 오양득 옥동훈
유용기 이대우 이동익 이상화 이성웅 이신화
이우석 이태근 이태식 이홍성 임창운 정신배
정철수 조경일 조대우 조병욱 조 익 조판제
좌상봉 차인환 최경호 최차호 최차환 한준석
한현교 허만탁 허 택

26회(45명)
강수남 강영년 강익규 고석훈 김광식 김기표
김두천 김영섭 김일광 김재용 김경원 김중우
김태년 김호용 박경수 박경재 박상호 박오욱
박원상 박의영 박재욱 백문현 성백은 성재일
손옥호 왕정일 이광태 이명진 이성근 이순철
이양춘 이영학 이유상 이정근 이희준 장만욱
정익고 조만석 지용섭 최명해 최수일 최의수
하성봉 하원규 홍순하

27회(23명)
고창우 김근우 김영삼 김호균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치호 반정열 배효택 서기룡 양태중
이민부 이성득 이원호 이 현 장창조 정두식
천우태 최인성 최휴진 하창우 한상훈

28회(40명)
구영소 김만중 김상운 김선경 김용석 김용섭
김익성 노영현 리신호 박성권 박종기 박진화
백영호 서기희 신중현 안 풍 양동욱 엄보용
옥상근 이만수 이민우 이종대 이종환 이흥오
임상규 임재덕 전선국 정두현 정백수 정영주A
정인식 정해영 주창석 최강호 최광해 최연삼
최연옥 하재근 한기웅 한명재

29회(40명)
강성훈 권오영 금시환 김기수A 김대옥 김병희
김부겸 김석운 김 영 김경규 김경암 김중권
김중명 박동홍 박명섭 박상길 박인평 박창언
박희규 사공운근 서석철 서영학 손영보 송경문
안청홍 윤석희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병건
이준환 이진욱 정 길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차의수 최문성 최경만 황맹균

30회(36명)
권용택 김경수 김기수 김영일 김유기 김해근
남영효 박규완 박원호 박재백 박정국 박철우
서강태 서민석 서하수 신구균 신원원 오경태
이명건 이철호 이태봉 이한수 이환기 인준승
장석일 장호영 장훈상 정경목 정성원 정영호
정태환 정해석 채영재 최우철 최진근 최진권

31회(34명)
김시현 김종규 김형수 김효연 남기태 민종현
박경수 박중호 박준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서규영 손영태 신상하 신용필 안중수 오민일
오호철 옥치호 윤석중 이승원 장재훈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최부영 최상웅 최인목 최진섭
최해영 하병관 홍 구 홍성수

32회(21명)
김광기 김영길 김창범 류현희 박상학 박성철
박원근 박종구 박진원 송기수 신국선 우득현
윤병조 이병훈 이성훈 임인섭 임채균 장기호
정용운 최춘호 최호영

33회(30명)
김기산 김명환 김범영 김원일 김재선 김종만
김태훈 남경태 박명진 박성병 박창완 백수현
서재영 송종현 신동천 안영훈 안찬모 오창선
이동근 이석희 이윤조 이진우 이창훈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영도 최웅남 황경원

34회(16명)
강승기 박수균 김범석 김상갑 김태하 노인선
박철웅 이강희 이성엽 이용희 이준권 장현기
정하태 조시형 진양호 황병주

35회(16명)
김기철 김동일 류인수 박동렬 서석권 손기철
안중엽 안종일 윤종호 이복근 이성한 이원우
이종찬 이춘기 장인화 주귀홍

36회(30명)
공진식 김관용 김규선 김병국 김용진A 김중백
김창일 박승근 박영찬 박진용 박철중 박형출
방진영 서귀호 신용덕 양호진 윤경준 이동희
이성호 이원석 이정영 이 창 이학수 이한호
임서룡 임창섭 정병기 정윤희 지동섭 최승호

37회(11명)
김영근 김원범 문진형 서동욱 소수현 유호섭
이수환 탁낙준 허부남 홍병일 황태운

38회(23명)
강금성 권두성 김경곤 김상수 김원철 김현민
류인식 문익현 박이현 박태봉 박기대 신동훈
심 춘 오화진 윤경만 이수관 이창호 이태훈
정인철 정재형 주영록 차성철 한민득

39회(32명)
김대중 김병기 김중엽 김현진 문기호 박근태
박상환 박인석 박종국 박준근 박해동 백기현
송영호 안영준 여동섭 유숙정 윤동배 윤원욱
이가용 이상학 이승기 이종욱 이종운 이철원
장동수 정순환 정용국 정진해 천용준 최보식
하성포 하순호

40회(17명)
고승성 권병서 김근영 김춘강 배병훈 서정민
손균호 심 철 안경진 옥진형 우영환 이 기
이병완 이상백 이정삼 한수열 황성수

41회(12명)
김신욱 김인수A 김정태 김형률 박정의 안광근
이광희 이양걸 장운호 조재봉 한정호 허종윤

42회(10명)
김광철 김동수 김태규 문지성 박동식 신동복
신봉준 정용중 정홍준 제정환

요즘 어떻게?

<10회>

△권대관 = 부인상. 3월 16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영안실에서 발인.

<20회>

△김영순 = 모친상. 3월 21일 나주 애향장례식장에서 발인.

<24회>

△권수찬 = 장녀 유경양 4월 25일 (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더파티움 여의도 B1층 그랜드컨벤션홀에서 결혼식. △하성기 = 모친상. 3월 20일 서울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하웅봉 = 딸 지윤양 3월 13일(토) 오후 3시 30분 대전 라도무스 아트센터 3층 아트리움홀에서 결혼식.

<25회>

△김종현 = 빙모상. 3월 13일 침례병원 영안실에서 발인. △박광용 = 딸 3월 7일(일) 센텀사이언스파크웨딩홀에서 결혼식. △이신호 = 빙모상. 3월 11일 온병원 영안실에서 발인.

<26회>

△김현용 = 장녀 성미양 4월 10일(토) 오전 11시 일본 후쿠오카 아가페교회 2층 예배당에서 결혼식. △송제명 = 아들 지훈군 2월 26일(금) 오후 1시 천주교 서울대교구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결혼식. △정국근 = 장녀 영조양 4월 10일(토) 오후 1시 인천 천주교 주안 1동 성당에서 결혼식. △조만석 = 빙모상. 3월 21일 경북 김천 천성교회에서 발인.

<27회>

△김주학 = 「변호사김주학법률사무소」 개소. 경남 통영시 중앙로 297, 삼성생명빌딩 10층. tel.055-649-7632. △정민화 = 아들 연승군 3월 21일(일) 오전 11시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결혼식. △조영일 = 모친상. 1월 28일 대연장례식장에서 발인.

<28회>

△김동수 = 모친상. 2월 9일 부산 범천동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상정 = 모친상. 3월 16일 부산 고신대 복음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종갑 = 모친상. 2월 24일 부산 녹산 갑을녹산

‘동문사랑이 삶’의리의 용마’ 영면
‘총동창회 지킴이’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 타계

남진현(19회·사진) 총동창회 자문위원장 겸 총동창회관장이 지난 4월 4일 오전 숙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76세. 고인은 지난 35년여 오랜 세월 동문회와 모교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해온 총동창회의 ‘지킴이’였다. 총동창회 대소 행사마다 참여하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발로 뛰는 현역 원로’였다.

고인은 운명을 달리할 때까지도 무

보수 초대 총동창회관장으로서 회관의 초석 다지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대선조선 전략본부장이란 대단히 바쁜 개인 직무에도 시간을 쪼개 총동창회를 위해 헌신했다. 오로지 ‘동문사랑’에 인생을 건 ‘의리의 용마’였다.

2020년 용마대상을 수상한 고인은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서 서로 도와주자’는 신념을 피력하며, 동문 선후배 간 화합과 교류를 당부했다. 고인은

지난 3월 15일 용마골프회 정기총회에서 “함께 나가자”는 건배사를 남겼다.

유족으로는 부인 강호순 여사, 아들 남신환·며느리 편은주 씨, 딸 남지원·사위 홍성현 씨가 있다. 연락처(부인) 010-3779-6462.



부음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영섭(7회) = 2월 17일
△최장훈(10회) = 2월 16일
△김서곤(11회) = 2월 19일
△김현주(12회) = 1월 8일
△박병주(12회) = 1월 17일
△차수명(12회) = 2월 16일
△김성락(17회) = 2월 28일
△임영수(19회) = 2월 14일
△김순신(20회) = 2월 9일
△임상택(25회) = 3월 5일
△서재원(30회) = 2월 15일
△최재봉(30회) = 12월 22일

병원에서 발인. △박진주 = 부친상. 1월 22일 인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안상원 = 차남 노준군 2월 27일(토) 오전 11시 김해 아이스퀘어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 △조인호 = 장녀 현선양 2월 20일(토) 오후 1시 여의도 웨딩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홀에서 결혼식. △한태영 = 장남 상균군 4월 10일(토) 오후 5시 라마다 서울 신도림호텔 14층 하늘정원에서 결혼식. △황치중 = 아들 성현군 3월 27일(토) 낮 12시 30분 서울 밀레니엄 힐튼 그랜드볼룸홀 1L층에서 결혼식.

<29회>

△박동흙 = 장남 기태군 3월 7일(일) 대구 노비아갈라웨딩(동촌점) 2층 그랜드홀에서 결혼식. △서봉교 = 빙모상. 3월 12일 서울경찰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서 발인. △손 일 = 모친상. 3월 12일 서울경찰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서 발인. △윤청룡 = 모친상. 3월 11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장례식장 특1호에서 발인. △임태충 = 장남 한얼군 2월 20일(토) 오후 2시 30분 더채플앳논현 6층 라포레홀에서 결혼식.

<30회>

△김길수 = 모친상. 2월 9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종곤 = 부친상. 2월 13일 영도구민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진영 = 장녀 1월 16일 결혼식. △김철규 = 부친상. 1월 5일 발인. △옥유전 = 부친상. 2월 1일 거제 맑은샘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상호 = 차

녀 향재양 4월 3일(토) 오전 11시 더컨벤션 영동포점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결혼식. △이영석 = 장녀 원빈양 2월 6일(토)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1층 컨벤션홀에서 결혼식. △이한수 = 빙모상. 3월 22일 동래한서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조병훈 = 모친상. 2월 20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실낙원장례식장에서 발인. △최거훈 = 장녀 윤정양 3월 7일(일) 오후 5시 30분 JW메리어트호텔 서울 5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

<31회>

△김성규 = 차남 경훈군 2월 27일(토) 오전 11시 동래 호텔 농심에서 결혼식. △김인현 = 모친상. 1월 29일 서구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손진기 = 빙모상. 2월 16일 동래 대동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현수 = 모친상. 2월 5일 좌천동 봉생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임종철 = 모친상. 3월 21일 사하구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주병규 = 빙모상. 2월 19일 구포 한중프라임 장례식장에서 발인. △조현우 = 모친상. 2월 3일 구포 한중프라임 장례식장에서 발인. △최경침 = 차녀 은혜양 3월 20일(토) 오후 1시 서울 JW 메리어트호텔 동대문에서 결혼식.

<33회>

△김 일 = 부친상. 1월 29일 부산 중앙성당에서 발인. △박명제 = 빙부상. 2월 28일 동아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원광우 = 모친상. 3월 9일 대동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7회>

△강 익 = 부친상. 2월 11일 제주부민장례식장에서 발인. △김민호 = 압구정성모안과의원, 2020년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메디컬투데이)수상. △김치언 = 부친상. 3월 23일 동아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상현 = 「법무사박상현사무소」 4월 1일 개소.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 187, 210호. tel. 051-703-7773. △방정원 = 자녀 3월 21일(일) 다비다웨딩홀3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 △최성도 = 빙부상. 2월 26일 부산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최용호 = 자녀 3월 13일(토) W스퀘어웨딩홀 더갤럭시홀에서 결혼식.

<41회>

△여근섭 = 「31갤러리」에서 2월24일~3월2일 서울 초대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23, 동일빌딩.

43회(8명)

강병규 김중식 김태형 박경곤 이용상 장병철 정효범 최용석

44회(13명)

김성준 김찬홍 김해근 배봉건 우도균 윤상훈 윤철홍 이동렬 이창용 조영호 조철현 탁정환 황인주

45회(4명)

김진수 김현호 이상현 최재근

46회(2명)

김동희 한영길

47회(7명)

감기환 고달우 김재성 성상용 손효준 이승택 정 신

48회(4명)

김주현 김춘호 김태균 차원일

49회(2명)

이충현 장민건

50회(2명)

김유진 박중현

51회(6명)

구민석 김기호 박보순 반길호 신석진 신현식

52회(30명)

강영철 강재식 구순모 김민수 김민철 김성화 김용권 김지운 김현진 김형준 문성환 박상현 박선중 박정규 변의현 변정환 심종배 양현승 유중갑 이경원 이도경 이세벽 이해곤 정길수 정상중 정현철 최형주 한중현 허근영 허홍만

53회(8명)

강덕천 광상훈 김권우 문희규 송승윤 이원준 전세일 한동민

54회(16명)

강치범 고강인 고지현 김승택 김영빈 남준현 박신우 손희원 엄도용 이재진 이재필 이찬희 장성민 정준섭 제재철 조중완

55회(4명) 이옥한 이종원 이향림 최성원

56회(1명) 손정현

58회(2명) 김현운 정 혁

60회(1명) 이명휘

66회(1명) 김덕형

67회(2명) 전명재 황유광

69회(1명) 정민기

78회(1명) 홍경민

79회(1명) 김민규

기수 & 이름 확인불명 2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는 SV Tech는
해외의 우수한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www.svtech7@svtech7.com

ATC (Tool Changer)



Guide Pin이 없는
내부 통합형 설계의
ATC 제공.

Light Gripper (Carbon)



Carbon을 소재로 한
정밀하면서도 초경량화 된
Gripper 제공.

Deburring Tool



완벽한 Deburring을 위한
고정밀 고품질의
Deburring Tool 제공.

Transfer Press & Robot Gripper



컴팩트한 디자인, 고품질 및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Transfer 및 Robot 用
Gripper 제공.

Track Motion

높은 품질, 강력한 강도,
높은 반복위치 정밀도, 높은 기대 수명,
고객 맞춤 솔루션의 Track Motion 제공.



대 표 이 사 : 최재근 (45회)

Tel : 010-6365-0265

Safety Fence



시스템의 완성은 Fence입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의 AXELENT 산업용 안전펜스는 이런 제품입니다.

- 기존 Fence 대비 **40% 가량 설치 시간을 단축** 가능
- Lay-out 변경에 따른 유연한 대응 가능
- 별도의 도구 없이 X-Key만으로 Mesh Panel 분리 가능

AXELENT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 식품 (풀무원, CJ, 롯데푸드, 진주햄) / 물류 (쿠방, GS SHOP, CJ대한통운)
- 로봇 (KUKA, ABB, YASKAWA, NACHI) / 전자 (LG전자, 글로벌텍 한화, SFA)
- 자동차 및 철강 (GMK, 현대제철, B&G 스틸, 센트럴 모텍, 동희산업, LG하우시스) 등



☎ 상담전화 : 053) 215 - 1992

@이메일 : svtech7@svtech7.com